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4호 | 2023 봄

포커스 I 인물로 보는 독도

포커스 II 고지도로 보는 독도

동북아역사포커스 제4호 (2023 봄)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4 Spring 2023)

동북아역사포커스

제4호 2023 봄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이영호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심호성, 위가야, 조건, 조윤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글 김현철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4
특별기고	재일 한국인 연구자가 바라본 독도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	7
포커스 I 인물로 보는 독도	안용복과 ‘비변사 진술’에 대하여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18
	무신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과 수토제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9
	울도군수 심흥택의 부임과 울릉도·독도 관리활동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43
	초대 독도박물관장, 사운 이종학 서설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58
	오사카에서 독도를 외친 재일동포 운영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76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의 생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90
포커스 II 고지도로 보는 독도	한국 고지도 속의 독도 오상학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02
	일본 고지도 속의 독도 심정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17
	서양 고지도 속의 독도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34
체험! 역사현장	우리 곁에 있는 독도: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에 대한 경과 정은정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	152

우리의 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은 초·중·고교 교과서와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등에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독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돌이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4호에서는 ‘인물과 고지도로 보는 독도’를 대주제로 하여 우리 역사 속에서 독도 지킴이로서 활동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각국 고지도에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기고」에서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는 ‘재일 한국인 연구자가 바라본 독도’라는 제목하에 안용복에 대해 자신의 연구를 비롯한 일본 내 연구현황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I」은 ‘인물로 보는 독도’로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우리 역사에서 현재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 6명의 인물을 선정하여, 시대순으로 그 생애와 활동들을 개괄합니다.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은 17세기 말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사과를 받은 안용복의 행적과 활동을 그의 진술과 일본 측 사료를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장정수 연구위원은 17세기 말 강원도 삼척첨사에 임명된 무신 장한상이 울릉도에 파견되어 조사한 활동을 재조명합니다. 박한민 연구위원은 대한제국 시기 울도(울릉도)군수로 부임한 심홍택이 일본의 침탈에 대응한 활동을 그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유하영 연구위원은 평생 독도를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독도박물관에 기증한 이종학 초대 독도박물관장의 삶과

열정을 회고합니다. 홍성근 연구위원은 재일동포 윤영하 씨가 오사카에서 독도에 대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일본 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하고 호소했던 생전의 활동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시환 연구위원은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최초의 독도 주민이 된 최종덕이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해가는 모습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II」는 ‘고지도로 보는 독도’로서 독도가 각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표기되었는가를 고지도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상학 제주대학교 교수는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한국의 주요 지도들에서 독도가 전체 한반도와 같이 표기되어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정보 서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거나 또는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종근 재단 연구위원은 17세기 이후 서양의 고지도들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재된 사례들과 19세기 서구 열강이 실측하여 작성한 해도 속에 독도가 표기된 사례들을 알기 쉽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도들은 지도 내 표기된 독도에 대한 명칭이나 위치는 제작 시기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서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독도를 한반도와 울릉도에 부속된 섬, 즉 한국의 영토로 여겼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역사현장」에서 정은정 재단 독도체험관장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개관한 독도체험관이 2022년 10월 2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하기까지의 경과와 재개관한 독도체험관의 변화된 모습 및 주요 전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의 글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독자들께 독도의 지리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하거나 독도체험관을 견학하여 한국 영토로서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연구하거나 활동한 분들의 독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서, 독도에 대한 학술 연구와 교육 홍보가 좀 더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김현철

재일 한국인 연구자가 바라본 독도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

필자가 본격적으로 독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2007년쯤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 측 독도 연구에 대한 비판은 매서웠다. 필자와 함께 서적 『竹島=獨島論爭』(번역본, 『독도=다케시마 논쟁』)을 간행한 시마네(島根)대학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는 “한국과 북조선의 안용복 연구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 조사받은 비변사에서의 공술 내용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등에만 의거하고 있어, 상대 측인 돗토리(鳥取)번의 사료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고야(名古屋)대학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도 “한국인 연구자에 의한 안용복 사건 연구의 최대 문제점은 해당 연구가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며, 관련 자료가 양측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사료를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자극을 받아 필자는 안용복 사건

특별기고

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오랫동안 기술자로서 근무했던 회사에서 정년이 되어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연구용역에 응모했다. KMI에서는 필자가 서적을 한두 권 출판했을 뿐 검증된 연구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행히 연구계획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은 통과되었다. 연구를 위해서 안용복에 관련된 한·일 양국의 많은 사료를 분석해야 했기에 일본 고문서의 초서체를 읽는 데 대단한 고생을 했다.

1. 안용복은 제약의 근원인가?

일본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좌장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안용복을 ‘독도 문제’에 있어서 ‘제약(諸惡)의 근원’이라 하고, 안용복의 그릇된 증언이 조선 역사서에 받아들여져 안용복의 영웅상이 형성되었다고 비판했다.

일본 연구자들이 특히 문제시하는 것은 ①1693년 안용복이 일본으로 연행되었을 때 에도(江戸)에서 관백(關白)으로부터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서계를 받았다, ②그 서계를 쓰시마도주(對馬島主)가 빼앗았다, ③1696년 안용복은 울릉도를 침범한 일본인들을 질책해 섬에서 쫓아냈고 또 자산도에서도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진술 등이다. 당시 한국인 연구자들은 이 세 가지를 거의 진실처럼 받아들였지만, 일본의 공식기록인 돗토리번의 『히카에초(控帳)』나 『고요닌일기(御用人日記)』, 쓰시마번의 『다케시마기사(竹島紀事)』 등을 살펴보았더니 관련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숙종실록』도 안용복의 진술에는 허위가 많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안용복을 취조한 적이 있는 도승지 유집일은 쓰

특별기고



부산 수영사적공원 내
안용복 동상
동북아역사넷

시마 사람들이 은화와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고 인정받은 문서를 겁탈했다고 말하는 안용복을 전혀 믿지 않았다(『숙종실록』 숙종 22년 10월 23일 조). 따라서 쟁점 ①과 ②는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인 연구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쟁점 ③에 관해 필자는, 안용복이 1696년에 울릉도에서 일본인들과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695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워 앞의 연구용역 결과물에 썼다.

특별기고

한편, 유집일이 믿었던 안용복의 진술도 있었다. 쓰시마번이 안용복을 학대한 일과 그 배경에 관한 안용복의 진술이다. 그는 에도[실은 돗토리부(鳥取府)]에서는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쓰시마번에서는 죄인으로서 학대를 받았다. 이 처사는 에도막부의 뜻과 다르며 쓰시마번의 목적은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만듦으로써 에도에 공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들은 조선 정부는 쓰시마번의 서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에 대한 교섭 방침을 전환하여 울릉도에 대한 영유를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일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상황을 쓰시마번으로부터 들은 에도막부는 조사를 개시했다. 그 결과 막부는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근처에 마쓰시마(松島: 우산도)라는 섬이 있고, 두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조선에서 온 사신들에게 알렸다. 결국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를 포기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696년 일본으로 도향한 안용복은 조·일 양국에서 울릉도와 자산도(우산도)는 조선 땅이며 자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밝혔다. 이 인식이 조·일 양국에서 「원록 각서(元祿覺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에 기록되고, 오늘날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시모조에게 안용복은 영원한 제약의 근원이 되었다.

2. 안용복 행보의 수정

필자는 KMI 연구용역에서 1693년에 안용복이 납치되었을 때 그의 행보를 그렸다. 이 그림이 한국에서는 교재 『고등학교 독도 바로알기』에 실

특별기고



필자가 수정한 1693년 안용복의 행보

이 논문을 보고 필자는 우선 시마네반도 동쪽 남부에 있는 미호노세키초(美保關町) 관광협회에 나가하마의 위치를 문의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반도 동쪽 남부에 ‘나가하마’라는 버스정거장이 있다고 한다. 또 구글 지도에서 ‘미호노세키초 나가하마’를 검색하여 나가하마를 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우편번호부에서도 마쓰에시(松江市) 미호노세키초 후쿠우라(福浦) 나가하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야가의 배는 울릉도로 출항했을 때 반도

특별기고

동쪽 북부 구모즈(雲津)에서 출항했다. 그렇다면 귀로에 구모즈 근처에 들렀다고 생각되므로 이상균·안동립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가하마의 위치를 수정하고 안용복의 행보를 12쪽 지도처럼 수정한다.

3. 노벨상 물리학자의 교훈

일본에서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위원들을 엄히 비판하는 이케우치는 저서 『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關係史)』 끝에 자신의 인상적인 추억을 소개했다. 그가 대학생 시절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읽었다는 신문기사에 관한 이야기다. 그 기사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필자의 스승인 도모나가 신이치로(朝永振一郎)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이다.

도모나가 씨가 친구에게 말한 이야기다. “밤에 가로등 아래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열쇠를 잃었습니다’, ‘어디에서?’, ‘실은 저 쪽 어두운 곳인데요, 귀찮아서 밝은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립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이야기는 소립자 연구에 대한 비평이다. 그러나 본래 어두운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피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 논의가 공전된다는 것은 이 분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케우치는 이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아 즉시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 도모나가의 『양자역학적 세계상』을 읽었다고 한다. 또 그 신문 기사를 오래 낸 종이를 수첩에 끼워 지금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위 이야기는 이케우치에게 있어서 인생의 지침이며, 앞의 저서를 쓴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이케우치가 그 책을 쓴 동기는 “연구자는 자기 전문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세계의 ‘어두운 골짜기’에 나서 그것(평화로의 열쇠)을 찾는 노력을 거듭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케우치가 본받은 도모나가는 실제로 세계를 향해 핵무기 전폐를 평생 호소했던 학자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이케우치가 말하는 어두운 골짜기란 무엇일까. 그는 구체적인 예를 앞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집필하는 어느 대학교수로 부터 전화가 왔다. 그 교수는 이케우치의 저서에 따라 ‘독도 문제’를 쓰려고 하는데 공동 집필자가 “일본의 竹島(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늦어도 17세기에는 확립되었다”라고 쓸 것을 고집한다고 했다. 이케우치가 그 견해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말하자, 한동안 말이 없던 그 교수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정부는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쓰도록 강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정이 잘 이해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 교과서
집필자들은 역사
사실이나 자기
신념보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우선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 집필자들은 역사 사실이나 자기 신념보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우선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그런 교

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외무성 주장대로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믿을 것이며, ‘독도 문제’의 해결은 세대가 갈수록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두운 골짜기’가 될 것이다.

4.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나, 많은 대학의 독도연구소, 시민단체들이 활동해 그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도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다. 일본이 교과서나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서 도발적인 기술을 할 때마다 한국 측은 항의의 목소리를 올린다. 이는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항의만으로는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독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케우치처럼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행동해야 된다.

항의만으로는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독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케우치처럼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행동해야 된다.

여태까지 필자는 연구 위주로 독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때로는 일본의 독도 연구상황을 한국 학계에 알려왔는데 어느새 팔순이 되었다. 이제 이케우치나 스승 도모나가의 말이 떠오른다. 나도 ‘독도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에 미력이나마

특별기고

이바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성과를 일본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꿈꾼다. ‘독도 문제’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DVD를 제작하고, 이케우치처럼 시민을 위한 서적을 간행하고, 일본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등에 기증할까 한다. 이런 계획을 어느 국가기관에 말했는데 실현될지, 내 건강수명을 센다면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박병섭(朴炳涉, Park, Byoung-sup)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

도쿄교육대학(현 쓰쿠바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도 연구가로 반월성통신(半月城通信, han.org/a/half-moon/)을 운영하며, 한·일 관계 문제에 관한 논고를 발표하고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사이트(<http://www.kr-jp.net/>)에서 독도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국민훈장 석류장, 동북아역사재단 독도학술상 등을 수상하였다.

포커스 I

인물로 보는 독도

안용복과

‘비변사 진술’에 대하여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무신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과 수토제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울도군수 심홍택의 부임과

울릉도·독도 관리활동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초대 독도박물관장,

사운 이종학 서설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오사카에서 독도를 외친

재일동포 운영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의 생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안용복과 '비변사 진술'에 대하여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1. 들어가며

안용복(安龍福)은 울릉도와 독도 수호자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조선 숙종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1693년 당시 40세가량이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능로군”이었고, 일본 사료 「죽도고(竹島考)」에는 “노비”로 기록되어 있다. 그가 두 번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조선 영토’라고 주장한 사실이 다수의 한·일 고사료에 남아 있다.

이익은 안용복을 영토를 지킨 자로서 “영웅 호걸”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능로군” 또는 “노비”였을 그가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그의 ‘진술’만이 역사가 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한·일 간 상반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로서의 평가 역시 양국에서 극과 극을 달린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익은 안용복을
영토를 지킨 자로서
“영웅 호걸”로
평가하고 있다.

포커스 I

그의 진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용복에 대한 바른 역사상이 정립되기를 바란다.

2.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의 '진술'

1693년 4월, 8명의 조선인이 울릉도에 갔다. 이 중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이 일본인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흔히 안용복의 '제1차 도일'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경상감사의 보고서를 통해 조선 조정에 알려졌다. 그리고 이후 '울릉도 쟁계'라는 조·일 울릉도 영유권 논쟁으로 비화한다.

울릉도 쟁계는 우여곡절 끝에 1696년 1월 28일 에도막부가 오야·무라카와가(家)에 대한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키면서 일단락된다. 오야·무라카와가는 17세기 초·중반경에 울릉도를 발견하고 이후 매년 도해와 자원 반출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요나고(米子: 현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이다. 두 집안의 배가 격년으로 울릉도에 도해했으며, 두 사람은 1693년 울릉도에 갔던 오야가 배의 선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오야·무라카와가에 대한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1.28)'이 내려진 직후인 1696년 5월, 안용복과 승려 뇌헌 등 11명이 울릉도에서 오키섬을 거쳐 돗토리번으로 간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흔히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이 두 사람이 조선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울릉도 쟁계는 이 사건까지 포함한 형태로 전개되다가 1699년 3월 21일, 일본 측 최종 의견이 조선인 역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용복은 다수의 진술을 남겼다. 일본 요나고에서의 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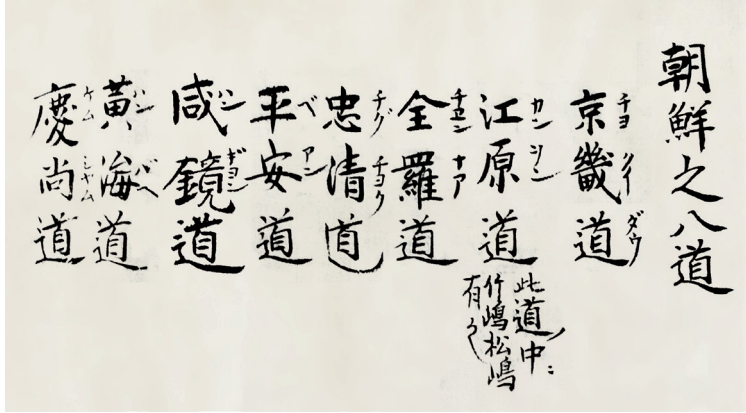
포커스 I

오 슈리에 의한 조사, 돛토리번·나가사키 부교(奉行: 관청) 및 쓰시마번에서의 조사와 조선 동래부 동헌에서의 접위관 홍중하에 의한 조사 등에 대한 진술이다. 그 내용이 한·일 양국의 여러 문헌·문서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형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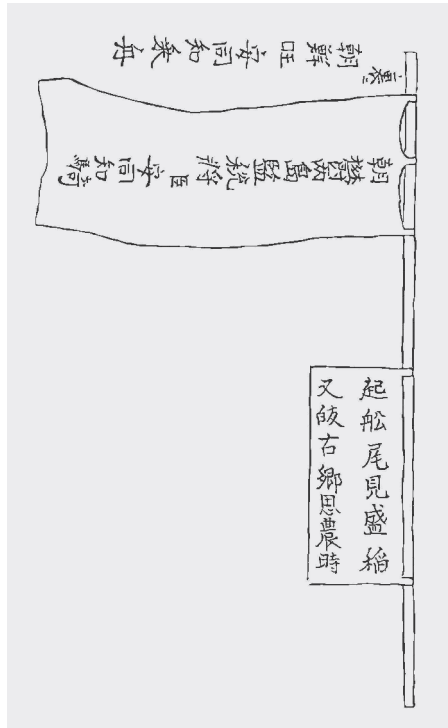
제2차 도일 때의 진술 내용은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 9월 25일조(이하 ‘비변사 진술’)와 「원록구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하 「원록 각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변사 진술’은 1696년 8월 29일 돛토리번에서 양양으로 귀국한 안용복 일행이 강원감사 심평에게 잡혀 한양으로 이송된 후, 9월 25일 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 때 한 진술이다. 「원록 각서」는 ‘1696년 병자년에 조선 배가 오키섬에 온 사건에 대한 각서 한 권’이라는 의미로, 1696년 안용복 일행이 오키섬에 들렀을 때 오키섬 관료가 그들을 조사하고 작성한 것이다.

3. 안용복의 ‘비변사 진술’과 일본 측 시각

안용복의 진술은 그가 제1차 및 제2차 도일 과정에서 일관되게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고 주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원록 각서」는 그 주장을 위해 제2차 도일을 감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원록 각서」에는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라는 제목하에 조선 팔도의 명칭을 쓰고, 강원도 아래에 “이 도(道) 안에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가 있다”라고 쓴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에도시대 명칭이다.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근거로서 이 지도를 들고 도일했던 것 같다. 이 사료는 일본에서 작성된 1차 사료이기 때문에 안용복의 ‘비변사 진술’에 대한 진실성



「원록 각서」,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



1696년 제2차 도일 때 안응복 일행이 타고 간 배에 단 깃발(『죽도고』)

포커스 I

을 더욱 강력히 입증해준다. 다만 이 사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5년의 일로서 그 이전에는 주로 ‘비변사 진술’의 진실성만 문제시되어 왔다.

‘비변사 진술’에 의하면 1696년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에 갔는데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이미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린 이후이기 때문에 오야·무라카와가는 물론이고 다른 어민도 결코 울릉도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안용복이 돛토리에 와서 “백기도주(伯耆島主: 돛토리번주)와 대좌하여 대담을 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한다. 안용복이 돛토리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중에 번주는 에도에 있었고 7월 19일 귀성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더 나아가 안용복의 고발로 돛토리번주가 울릉도·우산도를 침범한 왜인 15명을 적발하여 처벌했다고 하나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납치한 오야가의 뱃사람이 처벌되었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또 제1차 도일 때 “관백(關白: 에도막부 쇼군)의 서계”를 받았다고 했으나 쇼군이 울릉도·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정하는 서계를 주었다면 안용복과 박어둔을 귀환시키면서 쓰시마번을 통해 조선 어민의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시키라는 요구를 조선 정부에 했을 리가 없다고 한다.

그 외 안용복이 돛토리번에 와서 “울릉·자산양도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를 칭했다고 하나 다른 문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것, “삼품당상 신 안동지(三品堂上 臣 安同知)”로 칭하기도 했으나 품위와 품명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에서 오키섬을 경유하여 돛토리번으로 갔다고 한 것과 가로(賀露) 항구에 도착하여 돛토리 성하(城下: 돛토리 번청이 있는 중심지)로 갈 때의 상황, 즉 안용복은 가마를 타고 일행은 말

포커스 I

을 타고 갔다고 한 것 외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일본 측에서 볼 때 ‘비변사 진술’은 “일본 측이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빌미 삼아 어쭙잖은 지식을 사용하여 허세를 버리고 적당히 관명을 참칭”(川上健三, 1966)한 정도의 것이다.

4. ‘비변사 진술’의 재검토

일본 측 분석에도 허점이 있다. 1696년 1월 28일에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나 그것이 오야·무라카와가에 전달된 것은 아니다.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7월 19일 귀성한 돛토리번주를 통해 오야·무라카와가에 전달되는 것은 1696년 8월 1일의 일이다. 그 이전에 그들은 울릉도 도해금지령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한편 그들의 배가 울릉도에 도해하는 시기가 3~4월경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3~4월경 울릉도에 도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야·무라카와가는 초기에는 “약 200석들이 크기의 배 두 척에 50명” 가량 태운 배를 울릉도로 보냈으나 나중에는 배 한 척에 25명 정도를 보냈다고 한다. 이 기록은 울릉도에 많은 “왜선”이 와서 정박해 있었다는 진술 및 “왜인 15명”을 처벌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한 척의 배는 울릉도 근해에 머물러 있던 모선(母船)이며 실제로 울릉도에 접안하여 활동하는 여러 척의 “고부네(小船: 작은 배)”가 있었다는 것과 오야·무라카와가 배의 승선원 수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줄어들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돛토리번주의 귀성일이 7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안용복이 그와 대좌하여 대담을 했을 리 없다고 하나 돛토리번주는 아니더라도 그의 위상을

대리한 ‘돗토리번의 높은 누군가’와 만났을 가능성은 크다. ‘비변사 진술’에서 안용복은 “관백”에게 상소문을 올리려 하였으나 “쓰시마번주(對馬島主) 아버지”의 간청이 있어 상소를 중단했다고 했다.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고 돗토리번주에게 간청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쓰시마번주 아버지”의 간청이란 것에 당시 쓰시마의 상황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 안용복이 돗토리번의 ‘높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1694년 11월 16일 제4대 쓰시마번주 소 요시쓰구가 죽고 그의 동생 소 요시미치가 제5대 번주로 취임한다. 그리고 그들의 부친이며 제3대 번주였던 요시자네가 요시미치의 섭정이 되고 울릉도 쟁계를 담당하게 된다.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라는 말에는 부친으로서 안용복의 상소문이 에도막부로 올라갈 경우 당시 쓰시마번주인 아들이 입게 될 리스크를 우려하는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안용복 일행이 돗토리에 온 것을 알게 된 에도막부는 그들을 나가사키로 보내 원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요시자네는 이들을 돗토리에서 바로 조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도막부는 요시자네의 주장대로 돗토리번주에게 지시했다.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이 돗토리에서 추방되어 바로 양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구체적으로 ‘비변사 진술’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용복이 에도막부에 상소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배경에 쓰시마번의 관여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쓰시마번주 아버지”의 간청이란 것에는 쓰시마번의 내부상황 및 에도막부·돗토리번·쓰시마번 사이에 전개되었던 울릉도 쟁계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이는 돗토리번의 누군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들

포커스 I

은 말이 아니라면 안용복이 결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돗토리번주일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돗토리번주가 귀성한 것은 7월 19일이고, 안용복 일행이 돗토리에서 추방당한 것은 8월 6일이다. 그동안 안용복 일행은 돗토리에 있는 아오시마 고잔이케에 머물러 있었다. 즉 돗토리번주는 안용복이 아직 돗토리에 있을 때 귀성했고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1693년에 안용복이 “오키도주(隱岐島主)”에게 울릉도·우산도의 소속이나 “관백의 서계”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하나 「원록 각서」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 측이 검토했던 것은 돗토리번의 업무기록인 「어재부일기(御在府日記)」이다. 반면 「원록 각서」는 당시 오키섬을 관할했던 이와미 다이칸[代官: 현 시마네현 오타시에 있었던 이와미 은산령(銀山領)을 통치했던 에도막부 관료]에게 보고된 문서로 에도막부와 돗토리번 등 주변의 번(藩)에 보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어재부일기」의 기록이 「원록 각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 영토’라는 안용복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1693년에 안용복이 “관백의 서계”를 받았을 리 없다고 하나 이는 그가 “에도”에 갔다고 한 진술과 연결시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안용복은 제1차 도일 후 자신들이 울릉도에서 붙잡혀서 죄인처럼 밧줄에 묶였고 7일째 되는 날에 “에도”로 보내졌다고 진술했다. “에도”에서 처음에는 죄인 취급을 하였으나 곧 태도를 바꿔 정중하게 대해주었고 나가사키로 보낼 때는 가마에 태우고 선물까지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조].

그런데 이 “에도”는 에도막부가 소재했던 도쿄가 아니라 돗토리번이 소

포커스 I

재한 돛토리를 의미하는 “에도”다.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붙잡혀 7일째 되는 날에 “에도”로 보내졌다고 진술했다. 안용복의 제1차 도일과정을 보면, 이들이 울릉도를 떠나 7일째 되는 날에는 오키섬이나 시마네 또는 돛토리의 해안가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안용복은 자신이 간 곳을 “에도”라고 생각한 것인데 아마 주변인의 대화에서 “에도”라는 말을 알아듣고 자신이 “에도”에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나중에 안용복도 자신이 간 곳이 “에도”가 아니었음을 인지하여 ‘비변사 진술’ 등에서는 “백기(돛토리번)”로 갔다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같은 맥락에서 “관백의 서계”는 돛토리번의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차 도일과 관련된 안용복 진술을 통괄해보면, 안용복은 일관되게 귀국 시 울릉도 또는 울릉도·자산도와 관련된 “공문” 내지는 “문서”와 “선물”을 받았고 그것을 쓰시마에서 빼앗겼다는 진술을 한다. 이 “공문” 내지는 “문서”가 “관백의 서계”로 표현된 것인데 이 중 관백은 돛토리번의 ‘높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돛토리번주일 수도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안용복이라는 인물은 그의 제1, 2차 도일과 관련한 진술을 통해 역사 속에 우뚝 서 있다. 우산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로서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굳건한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조선 숙종 연간을 살았던 ‘일개 백성’이었던 그가 역사적 인물로서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이유다. 한편 일본에서 안용복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다. 소위 일본 사료와 대조·검토하는 방법으로 ‘비변사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사료만을 통해 역사를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외 여러 정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그가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큼의 일본어를 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진술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동행했던 박어둔, 뇌헌 등은 진술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일본에서 본 것은 있을 것이나 들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겪은 시각적 경험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을 것이다.

또 안용복의 일본어 능력과 함께 도일 이전 그의 지식과 경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안용복의 일본어 실력이 역관만큼 뛰어났을 리 없다. 어느 정도 알아듣고 간신히 의사표현을 했을 정도가 아닐까? 더욱이 동래 왜관을 드나들었다고는 하나 일본 정치,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었을 리도 없다. 추정컨대 안용복에게는 '에도', '관백'에 대해 조금 아는 정도의 지식만 있었고, 그것이 돛토리를 "에도"로, 에도막부 쇼군을 "관백"으로 표현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우산도는 조선 영토'라는 주장

안용복이라는 인물은 그의 제1, 2차 도일과 관련한 진술을 통해 역사 속에 우뚝 서 있다. 우산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로서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굳건한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포커스 I

**‘울릉도·우산도는
조선 영토’라는
것은 안용복 개인의
진술이 아니라
그 시대가 안용복을
통해 말하고 있는
진술인 것이다.**

도 조선의 한낱 백성에 불과했던 당시의 지식과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국민의 원양 도해를 엄금했던 해금(海禁)시대에 초유의 국제적 납치사건에 휘말린 경험, 즉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 조선에서 취조를 받으며 알게 된 것을 배경으로 나온 주장일 것이다. 즉 ‘울릉도·우산도는 조선 영토’라는 것은 안용복 개인의 진술이 아니라 그 시대가 안용복을 통해 말하고 있는 진술인 것이다.



정영미(丁永美, Chung, Young-mi)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일본 도쿄외국어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에 발족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대응팀에 합류하면서부터 독도 관련 연구, 정책대응, 교육홍보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 독도체험관 기획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독도체험관장을 역임했다.

무신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과 수토제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7세기 말,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다. 병자호란 이후 한동안 지속된 청과의 불편한 관계가 ‘삼변의 난(1673~1681)’ 진압 이후 해소되었고, 1682년 통신사 파견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역시 적례외교로 정착하였다.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외교관계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경계[界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청과의 백두산 정계(定界)나 일본과의 울릉도 쟁계(爭界)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국교의 안정이 각자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그것이 국가 간의 외교적 실무교섭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
청·일본과의
안정적인 외교관계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장한상(張漢相, 1656~1724)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었다. 17세기 중반 무과에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형적인 무신(武臣)의 길을 걸었고, 흥미롭게도 백두산 정계·울릉도 쟁계와 모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삶을

살펴본다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조선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수토(搜討)가 제도로 정착하게 된 계기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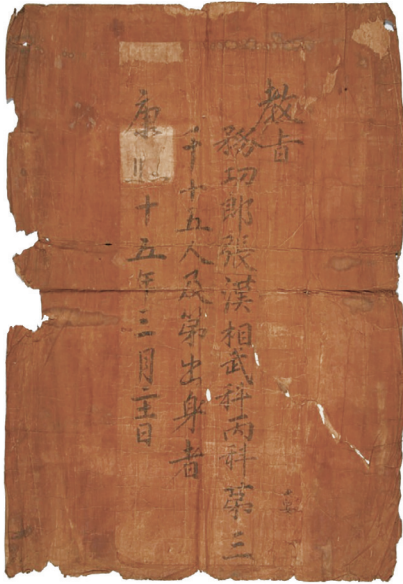
1. 장한상의 무과 급제와 초기 관력

장한상의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필경(弼卿), 호는 운암(雲巖)이다. 아버지는 장시규(張是奎), 어머니는 진성이씨(眞城李氏)이며 오늘날 경상북도 의성에 해당하는 비안현(比安縣)에서 태어났다.

장한상은 1676년 1월, 병조에서 동래(東萊)와 비안의 쓸 만한 한량(閑良)들을 추천받아 국왕 숙종에게 보고했을 때 처음 등장한다. 같은 해 그는 1만 7,652명 중 4,029등으로 무과에 급제했지만, 2년 뒤 ‘무반의 청요직’으로 간주되는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성적으로 보자면 우수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명한 무장이었던 아버지 장시규의 후광을 받아 엘리트 코스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전관 장한상은 그 이후 도총부 도사(都事), 중추부 경력(經歷), 훈련원 첨정(僉正), 이주첨사(伊洲僉使), 훈련원 부정(副正), 어영청의 파총(把摠) 등

장한상의 삶을
살펴본다면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조선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한상의 무과 급제를 입증하는 흥패
의성 경덕사

을 역임했다. 1681년에는 경상우도의 병마우후(兵馬虞候)로 발탁되었고 1682년 4월 비변사에서 장수로 쓸 만한 자(將領可合)를 추린 명단에 포함되는 등 무신으로서 성공적인 이력을 쌓아갔다.

장한상은 경상우도의 병마우후로 부임하지는 못했다. 1682년 통신사의 군관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사(副使) 이언강(李彦綱)의 군관으로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훗날 울릉도 조사를 앞두고 삼척첨사(三陟僉使)의 적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 장한상은 희천·자산·태안군수를 지내는 등 주로 외직으로 나가 경력을 쌓았고, 돌아와서는 내금위장(內禁衛將)에 임명되는 등 순조롭게 관력을 쌓아갔다. 1689년 충주영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비변사에서 병마·수군절도사의 후보군을 추렸을 때 그 안에 들기도

포커스 I

했다. 장한상이 선전관으로 기용되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음을 뜻하는데, 아버지의 후광과 무신으로서의 자질에 힘입어 고속 승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장한상의 삼척첨사 임명 배경

장한상의 관직생활이 무탈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692년 전라도병마절도사를 거쳐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지만, 갑술환국(1694) 이후 사헌부로부터 “간신에게 줄을 대고 탐욕을 부렸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아 삭거사판(削去仕版)의 처벌을 받았다. 이는 장한상이 서인·남인의 정국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장한상이 서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안용복 납치 사건(1693)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울릉도를 둘러싼 쟁계가 발생했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한상이 울릉도를 조사할 적임자로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장한상은 삼척첨사로 기용되어 울릉도를 다녀와 지도를 첨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다. 그가 울릉도를 조사하고 올린 보고서가 조선 정부의 대책 마련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암시한다.

장한상이 삼척첨사로 임명되기까지의 경과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 울릉도 쟁계가 일본과의 외교 현안으로 부상할 무렵, 조선 정부는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울릉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영의정 남구만은 삼척첨사를 엄선해서 울릉도에 파견하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주시켜 고을을 두거나 군사거점을 설치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자고 제



『교동수사공만제록』에 수록된
『울릉도사적』

의성조문국박물관

안했다. 당초 임명된 사람은 장한상이 아닌 이준명(李浚明)이었다.

이보다 앞서 조선은 강원도의 군제를 정비하면서 영동 지역의 방비와 치안을 담당할 직책을 신설한 바 있었다. 수령과는 별도의 전임영장을 파견하자는 논의였는데,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가 주요 사안이었다. 한동안 강릉과 삼척이 후보지로 논의되었으나 1673년 마침내 삼척에 영장을 두어 영동의 9개 고을의 군병을 관할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당상관을 두기는 부담스러웠기에 삼척영장(三陟營將)이 삼척첨사를 겸하도록 했다. 삼척첨사는 수군첨절제사였다는 점에서, 울릉도 파견을 논의할 때 삼척첨사의 직함이 거론된 것이다.

한편, 이준명이 임명되고 나서 오래지 않아 삼척영장은 장한상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후대의 논의에서 확인된다. 1695년 4월 남구만이 자산군수로 차임된 이준명을 파직하라고 건의하면서 “지난해 삼척첨사가 되었을 때 울릉도 심찰(審察)을 회피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때는 이준명이 파직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추천한 병조의 관원들까지 처벌받

포커스 I

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울릉도 파견이 고역으로 간주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준명은 1701년 삼척영장으로 다시 임명되어 울릉도를 수토하게 된다.

이처럼 울릉도를 다녀오는 일이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임무였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울릉도 파견은 실세한 관원의 재기 내지 속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다. 삭거사판 조치로 인해 관력 자체가 말소된 장한상이 울릉도를 다녀온 직후 다시 병마절도사의 반열에 올랐던 점이나, 파직된 이준명이 끝내 울릉도에 파견된 점 등은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장한상이 이를 위해 울릉도 파견을 자청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준명이 임무를 회피하여 체차된 뒤, 남구만은 삼척첨사의 대임을 모색하면서 울릉도 조사의 과업을 기꺼이 또 문제없이 처리할 인재를 찾았다. 1694년 7월 13일, 공조판서 신여철(申汝哲)은 젊고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이유로 장한상을 적극 추천하면서도 국옥(鞠獄)에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주저했다. 숙종이 이를 께넘치 말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병조판서 윤지선(尹趾善)이 장한상을 추천하면서 왜국(倭國)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 영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조판서 유상운(柳尙運) 역시 국옥의 관계 여부를 따지지 말고 거두어 쓰자면서 동의하자, 마침내 숙종은 장한상을 삼척첨사로 임명했다.

장한상은 같은 달 17일에 삼척첨사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열흘도 되지 않은 25일에 사조(辭朝)하였다. 그가 임지에 도착하여 그해 9월에 울릉도로 떠났음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한상의 임무는 치읍(置邑)·설진(設鎭)의 가부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정기적인 울릉도 조사, 즉 수토

제의 시행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3.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과 수토의 제도화

장한상은 1694년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18일간 울릉도를 조사하고 돌아와 보고서를 올리고 또 현지에서 가져온 특산물을 진헌하였다. 「울릉도사적」은 그가 울릉도에 머물면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독도를 목격한 사실이 꽤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몇종의 이본도 확인되어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의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수토는 본래 “수색하고 토벌한다”는 의미의 군사작전이었다. 수토의 주요 대상은 조선의 해안과 도서(島嶼) 지역에 은거해 있던 왜구들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왜구들이 서·남해의 섬들을 근거지로 삼아 조선의 해역과 해안 지대를 위협했고, 반민들이 이들과 연계하거나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정부로서는 이들을 제거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꾀해야 했다.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수토가 시행되었고, 종종 연간에는 순변사(巡邊使) 지휘하에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진행된

장한상의 임무는
치음·설진의
가부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정기적인
울릉도 조사, 즉
수토제의 시행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울릉도 수토는 군사작전과 거리가 멀었다. 명칭은 동일했지만,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실이 시기에는 왜구나 일본인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시행할 이유가 없었다. 에도막부는 중앙정부로서의 구심력이 전에 없이 강력하여 왜구의 활동 자체가 사라졌거니와 조선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한 상황이었으므로 유사시 교섭을 통한 해결이 가능했다. 조선이 자체적으로 군사작전을 시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공식적인 루트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울릉도 수토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를 주장하기 위한 정보의 획득과 현지에서의 일본인 활동을 제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점은 장한상의 행적과 「울릉도사적」의 내용에서도 간취된다. 1694년 9월 19일 장한상은 왜역(倭譯)과 군관들을 비롯하여 총 150여 명의 인원을 6척의 배에 나누어 태우고 울릉도로 출발했다. 모진 풍파를 헤치고 같은 달 21일 울릉도에 도착한 일행은 10월 3일까지 13일간 체류하면서 섬을 조사했다. 독도를 포함한 인근 도서의 현황, 섬의 지리적 환경, 사람의 거주 흔적, 일본인

조선 후기의
울릉도 수토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를 주장하기
위한 정보의 획득과
현지에서의 일본인
활동을 제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포커스 I

의 활동 흔적, 서식하는 동·식물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배를 정박시킬 만한 장소나 방어가 용이한 지점 등을 확인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 군사거점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를 마친 장한상은 일행과 함께 10월 4일 귀로에 올랐고 같은 달 6일 삼척으로 돌아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한상은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 보고하는 임무를 가졌고 이를 충실히 수행해냈다. 그런데 장한상을 ‘첫 번째 수토관(搜討官)’으로 여기는 통설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 살게 할 수 없으니 2년 간격을 두고 수토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인용문은 장한상의 보고를 받은 뒤 영의정 남구만이 제안한 내용을 담은 『숙종실록(肅宗實錄)』 기사인 한 대목이다. 시기적으로 장한상의 수토가 시행된 9월보다 앞선 기사이지만, 하나의 기사에 전후 사정을 모아둔 형태의 사료다. 이 기사를 제외하고, 장한상의 파견 이전까지 그를 수토관이라고 부르거나 울릉도 파견을 수토라고 지칭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토제는 장한상의 보고에 따라 치읍·설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안으로 채택된 ‘관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장한상의 파견 결과 수토제가 시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삼척첨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갔을 뿐 첫 번째 수토관은 아니었다.

어쨌든 장한상은 거친 바닷길을 헤치고 울릉도를 다녀와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울릉도의 실태를 파악해야 했던 조선 정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남구만의 주장에 따라 2년 간격(間二年) 즉 3년마다

포커스 I



장한상 영정
의성 경덕사

울릉도에 관원을 파견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로 했던 것이다.

수토제는 1699년에야 구체화되었다.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에 따라 논의가 재개된 것은 1698년이였다. 이해 3월, 숙종을 만난 좌의정 윤지선은 2년 간격으로 수토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커스 I

만약 지금 보낸다면, 4~5월 바람이 좋을 때에야 왕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도의 변장(邊將) 가운데 정해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토관을 보내기 직전까지도 누구를 보낼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윤지선은 장한상이 타고 갔던 배가 진흥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에서 판매되었으니 선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함께 입시한 관동녕부사 서문중(徐文重)은 동해의 배로는 먼 바다를 왕래하기 어려우므로 경상도의 각 포구에서 군선을 정해서 보내자고 제안했다. 4~5월을 수토의 적기로 본다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강원도의 변장을 수토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거나 수토관이 타고 갈 배를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수토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한다는 기초적인 방침을 제외하고, 시행을 위한 세부조항은 없었던 것이다.

같은 해 4월 20일, 영의정 유상운이 울릉도 수토관을 정하는 일로 숙종을 만났다. 이때 그는 경상도에 선박을 배정하는 문제, 양곡을 마련하는 문제 등이 정해지지 않아 이듬해 봄으로 수토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숙종은 조정의 명령을 쉽게 고쳐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지만, 유상운은 다시 “타국(일본) 사람들이 오가는 땅에 준비 없이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와 상의한 남구만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숙종은 수토를 이듬해로 물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울릉도의 첫 번째 수토관은 1699년 6월 울릉도에 파견된 월송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었다. 전회일은 울릉도의 지도를 그려서 올리고, 현지의 토산물을 진헌하였다. 동년 7월 강원감사 유지발(柳之發)은 장계

포커스 I

에서 전회일을 수토관이라 칭했고, 전회일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직보(直報)한 것은 수토가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월송만호 전회일의 수토 이후에야 관찰사를 통해서 보고하는 체제도 구축된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702년 삼척영장으로 다시 임명된 이준명이 울릉도를 수토하였다. 이로써 2년 간격으로 3년마다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교대로 수토하는 것이 정식(定式)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의 울릉도 수토는 장한상의 파견을 계기로 제도화되었고, 이후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현직관료가 수토관으로서 정기적인 수토를 시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간헐적으로 울릉도에 파견된 안무사(按撫使)나 경차관(敬差官) 등이 삼척 출신의 전직관료로 충원되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토제는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조선의 영역이라는 전제하에서 시행되었고, 이는 비슷한 시기에 청과의 백두산 정계가 진행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4. 울릉도 파견 이후의 장한상

울릉도를 다녀온 뒤, 장한상은 무신으로서 관직생활을 재개했다. 1696년 4월 삼척영장의 임기를 마친 장한상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1711년까지 칠곡부사, 황해도병마절도사와 내금위장,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1711년 4월 2일부터 동년 7월 28일까지 어영청(御營廳)의 별장(別將)으로 숙종대의 주요 과업 중 하나였던 북한산성의 수축 사업을 감독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고, 숙종은 그를 친히 불러서 격려하고 임지로 떠나보냈다.

이 가운데 북병사 경력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청초가 백두산 일대

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조선과의 정계를 시도할 즈음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백두산 인근의 지리 정보에도 밝지 못했다. 이 무렵 조선 조정에서는 청조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관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인들에게 탐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논의 끝에 북병사 장한상은 남병사 윤각(尹戩)과 함께 백두산 일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고, 1712년 4월 보고서와 지도를 올렸다.

하지만 장한상은 백두산 일대에 직접 다녀오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곤욕을 치르게 된다. 또 휘하의 무사가 변경을 넘어 청의 영역에서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파직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백두산 일대 조사에 미흡했다는 점 자체는 죄목으로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의 관행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장한상 이후에도 여러 인물이 추가로 파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한상은 이후 부총관·경기수사·회령부사 등 무신으로서 굵직한 직책에 임명되었고 적지 않은 풍파를 겪기는 했지만, 1724년 2월 사망한 뒤에는 종2품의 실직을 역임한 인물의 예로 담지군(擔持軍)을 제공받게 된다.

여기서 장한상이 울릉도에 이어 백두산 정계에도 연관된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강역 인식 면에서 정계와 정계는 서로 무관하지 않다. 용어 자체가 웅변하고 있듯이, 조선은 울릉도나 백두산을 자국령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지의 지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한상의 울릉도·백두산 조사는 조선 조정이 일본·청과의 외교교섭에서 활용할 정보를 확보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다. 장한상은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릉도 조사의 책임자로 지명되었고, 이후에는 축적된 이력을 인정받아 백두산 조사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

포커스 I

장한상의 울릉도·
백두산 조사는 조선
조정이 청·일본과의
외교 교섭에서
활용할 정보를
확보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셈이다.

할 수 있었다. 무신 장한상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던 시기에 국가 간의 경계와 관련된 현안의 일선에서 활동한 인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장정수(張禎洙, Jang, Jungs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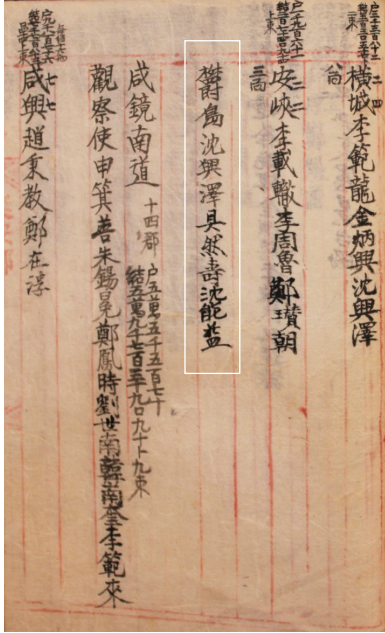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조선후기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7세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대외관계와 군사사를 공부해왔으며, 최근에는 강역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당대사적 관점에서 조선 왕조를 중심으로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부임과 울릉도·독도 관리활동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울도군수로 부임한 관리들

대한제국 시기 지방에 재직한 관리들의 부임자 명단을 도(道), 부(府), 군(郡), 현(縣) 행정단위에 따라 정리한 문건이 있다. 외직(外職)에 있던 관리들의 이름을 정리한 책자를 『외안(外案)』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중앙부서에 재직한 관리들의 직위와 명단을 기재한 책자는 『내안(內案)』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작성된 『외안』은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외안』의 경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관찰사와 춘천군수에서 시작하여 27번째 울도(鬱島: 울릉도)로 끝난다. 울도의 행정 등급은 '4등'이다. 울릉도를 울도로 승격시키고 군수를 파견하도록 규정한 것은 1900년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였다. 울도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전체와 대섬(竹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적실 소장
『외안』의 울도군수 명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외안』의 울도군수 명단

島), 독도(石島)였다.

장서각 소장 『외안』 울도 항목에는 군수 역임자로 배계주(裴季周), 강영우(姜泳禹), 배계주, 심흥택(沈興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이 자료에서 심흥택의 이름은 흡곡(歙谷)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름 아래로 ‘병육(丙六)’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판본의 『외안』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의 강원도 편은 전체 27군(郡), 관찰사 역임자로는 황철(黃鐵)과 이규완(李圭完)까지 들어가 있다. 27번째에 울도군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심흥택, 구연수(具然壽), 심능익

〈표 1〉 1900~1914년 울도군수 명단과 재직 기간

역임 순서	성명	재직 기간
1대	배계주(裴季周)	1900년 11월 26일 ~ 1901년 10월 9일
2대	강영우(姜泳禹)	1901년 10월 9일 ~ 1902년 2월 18일
3대	배계주(裴季周)	1902년 3월 7일 ~ 1903년 1월 26일
4대	심흥택(沈興澤)	1903년 1월 26일 ~ 1907년 3월 13일
5대	구연수(具然壽)	1907년 6월 27일 ~ 1907년 7월 21일
6대	심능익(沈能益)	1907년 8월 19일 ~ 1909년 7월 31일
7대	전태흥(全泰興)	1909년 7월 31일 ~ 1910년 10월 1일
8대	홍성욱(洪性郁)	1910년 10월 1일 ~ 1912년 3월 9일
9대	홍종욱(洪鍾旭)	1912년 3월 9일 ~ 1914년 3월 1일

* 홍성근, 2021, 「울도군수 심흥택의 독도수호」, 한국이사부학회 편, 『독도를 지킨 사람들』, 삼척시·한국이사부학회, 213쪽 ; 대한제국, 『官報』 ; 조선총독부, 『官報』 ; 『每日申報』 참조.

(沈能益)까지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바로 옆 횡성군수 명단의 마지막에도 심흥택이 있다. 장서각 소장 『외안』보다 더 뒤인 1900년대 후반 순종(純宗) 연간의 부임자 명단까지 정리한 문건임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 강원도에서 심흥택이 흡곡군수, 울도군수, 횡성군수를 역임한 관리였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외안』을 통해서 추려낼 수 있다. 1900~1914년까지 역대 울도군수 재임자 명단을 공문서에 나온 임면 기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9일 ‘본군 소속 독도(本郡所屬獨島)’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른바 심흥택 보고서를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한 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보고서는 이해 3월 말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른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리들의 동향과 시찰 목적을 파악하여 중앙정부

포커스 I

대한제국 관리가
공문을 통해
독도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심흥택 보고서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건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에 알린 것이다. 여기에 독도가 ‘일본 영지’가 되었다고 일본인이 심흥택에게 말한 내용이 있다. 대한제국 관리가 공문을 통해 독도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심흥택 보고서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건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귀중한 보고서를 남긴 심흥택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산 인물이었을까?

2. 울도군수 부임 전 심흥택의 관직 이력

심흥택의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청송심씨 대동세보(靑松沈氏大同世譜)』에 따르면 1855년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심의동(沈宜東)이었다.¹ 1906년 3월 시마네현 시찰단의 일행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오쿠하라 후쿠이치(奥原福市)가 남긴 『죽도와 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 따르면, 당시 52세였던 심흥택은 “서울 사람으로 너그럽고 넉넉한 인상이었으며, 간단 소박한 기풍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그가 남긴 이력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직 이력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고종 재위 시기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승정원일기』와 『관보』를 찾아보면 심흥택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 나온다. 하지만 한

1 홍정원, 2011,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중심으로」, 『軍史』 80; 김영수, 2019, 「울도군수 심흥택과 심능익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영토해양정책」, 『제국의 이중성』,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심홍택, 구연수,
심능익, 전태홍이
모두 경찰 사무와
관련된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인데,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치안 사무를 담당한
자들을 울릉도에
주로 파견하였음을
보여준다.

자 표기까지 똑같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같은 시대, 다른 관직에 있었다. 따라서 울도군수를 지낸 심홍택을 추적할 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한다. 동명이인 심홍택은 1897년에서 1904년 사이에 태복사 주사(太僕司主事)로 재직하였던 자로, 1904년 6월 8일 삭주군수(朔州郡守)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단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외시키면, 갑오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895년 4월 25일 내부(內部: 현 행정안전부) 소속 경무청(警務廳: 현 경찰청)에서 총순(摠巡) 5등에 임명된 심홍택을 찾을 수 있다. 그 옆으로는 순종대 울도군수를 지낸 심능익의 이름도 나온다. 심홍택의 후임으로 울도군수가 되었던 구연수의 경우 임명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무사(警務使)로 자리를 옮겼다. 심능익의 후임 전태홍도 울도군수 부임 전에는 경부(警部)로 재직하였다. 심홍택, 구연수, 심능익, 전태홍이 모두 경찰 사무와 관련된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인데,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치안 사무를 담당한 자들을 울릉도에 주로 파견하였음을 보여준다.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심홍택이 1896년(건양 원년) 4월 7일 경무관(警務官, 주임관 6등)에 임명되었다는 기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

포커스 I

장된 『의주(議奏)』란 자료에 나온다. 경무관이 된 심홍택은 이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견책을 받거나, 같은 달 10일 벌봉(罰俸)에 처해졌다는 사실이 『관보』 1896년 5월과 7월 기사, 그리고 『독립신문』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해 7월 26일 심홍택은 강원도 흡곡군수(주임관 6등)에 임명되었다. 『관보』의 「서임급사령(敍任及辭令)」 외에 장서각 소장 『외안』의 강원도 흡곡 항목에도 이름이 나온다. “건양 원년 7월 경관으로 부임(建陽元七警官任)”이라고 적힌 내용을 통해 부임 당시의 시점과 관직을 추약해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흡곡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애민선정(愛民善政)’을 베풀면서 가난한 백성에게 관의 전답을 내어주었다는 소식이 『독립신문』 1896년 12월 24일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가 흡곡군수에서 면직된 것은 1897년 12월 3일이었다.

한동안 인사 기록에 나오지 않던 심홍택은 1903년 1월 26일 울도군수(주임관 6등)에 임명되었다. 1903년 11월 6일 간행된 『관보』 「관청사항」 기사에 따르면 그가 울릉도에 도착한 일자는 이해 4월 20일이었다고 한다. 부임한 해부터 울도군수로 현지에서 심홍택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에 단신으로 보도되었다. 심홍택은 1907년 3월 13일부로 횡성군수(橫城郡守, 주임관 3등)에 임명되어 울릉도를 떠났다. 이후 횡성군수로 있는 동안 화성학교(花城學校) 운영 등 교육 사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의 ‘한국병합’이 단행된 이후로부터 1년 정도 지난 1911년 9월 6일자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심홍택은 횡성군수를 마지막으로 관직생활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퇴직 이후 그가 어디서 어떠한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심홍택이 울릉도에서 군수로 재직한 기간은 4년 2개월이었다. 앞서

포커스 I

〈표 1〉을 통해 보았듯이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던 아홉 명의 관리 가운데 그의 재직 기간이 가장 길었다. 재직하는 동안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방적인 시마네현 편입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울도군수 심홍택은 울릉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가?

3. 심홍택의 치적과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

(1) 심홍택의 군수 부임 후 섬 내 시설 개선과 러일전쟁 발발

군수로 부임한 이후 심홍택은 울릉도의 중요 길목으로 사람들과 선박의 왕래가 잦은 도동(道洞)에 새롭게 군청과 객사, 향교를 새로 건축하면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와 통치 관련 시설을 정비하였다. 청사 신축에는 2,000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이후 섬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해졌으며, 울도군의 면모를 일신한 명성과 명예를 멀리 있어도 숨길 수 없다는 군수의 치적이 1904~1905년 『관보』와 다수 신문에 실렸다. 군수 재직 3년차인 1906년에도 현명하게 일해서 섬 주민들이 편안해 한다고 하여 ‘상’의 근무평가를 받았다.

심홍택이 울도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섬으로 건너와 생활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각종 폐단을 야기하였다.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에서는 울릉도에 들어가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보호, 단속하겠다는 명목으로 1902년 4월 경찰 주재소를 도동에 설치하고 경부 1명과 순사 3명을 파견하였다. 이 사실을 강원도관찰사 보고로 확인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9월부터 주재소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항의하였다. 개항장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울릉도까지 일본인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것은 분명 조약 위반사항이었다.

심홍택은 주재소에 있던 아리마 다카요시(有馬高孝) 경부와 만나 “외국인이 내지에 들어와 재목을 베어가는 것은 애초에 부당”하므로 향후 벌목을 엄히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재소 설치도 조약에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에 이것을 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903년 9월 3일에는 울릉도 남양동으로 러시아 군함이 한 척 들어와 정박하였다. 상륙한 장교와 수병들은 울도군수를 찾아와 일본인들이 수목을 벌채하고 일본 경찰관이 도동에 주재하는데 조·일 간에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갔다. 러일전쟁 발발 전 러시아 군함이 울릉도 내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간 것이었다. 1903년 11월 26일 울도군수 보고에 기초하여 내부는 “일본 공관에 조회해 일본 경찰관과 몰래 건너온 사람들을 모두 즉시 철수하여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외부(外部: 현 외교부)에 하였다. 일본공사관에서는 심홍택의 보고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둘러대면서 철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개항장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울릉도까지 일본인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것은 분명 조약 위반 사항이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 중 일본은 1904년 8월에서 9월 사이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고, 울릉도 동남단과 동북단에 망루를 설치하였다. 러시아 발트함



울도군수 심흥택과 시마네현 관리들의 단체사진(1906)

오쿠하라 후쿠이치, 1907, 『죽도와 울릉도』, 호코샤(報光社)

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심흥택은 1905년 5월 27일과 28일 동해 해전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있었고, 전투에서 패배한 러시아 발트함대 잔존 병력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항복한 동향을 중앙에 보고하였다. 러일전쟁 기간 동안 심흥택이 일본군의 섬 내 망루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대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2) 시마네현 시찰단의 울릉도 방문과 심흥택의 대응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에서 온 일본인 시찰단이 울릉도에 도착

포커스 I

했다. 전체 45명으로 된 일행에는 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오키하라 후쿠이치 등이 있었다. 시찰단은 3월 26일 오키섬의 사이고항(西郷港)에서 출발하였다. 27일 독도의 동도와 서도에 상륙하여 섬을 시찰한 후, 선편으로 주변을 일주하다가 기상이 나빠져 울릉도로 기항하였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울도아문(鬱島衙門)’이란 편액이 걸린 관아를 찾아온 진자이 일행과 면담하였다. 여기서 그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3월 29일 곧바로 심흥택은 시마네현 시찰단과 만나서 들은 독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상급기관인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외양(外洋) 100여 리에 있는데, 이달 초4일 진시(양력 3월 28일 오전 7~9시) 무렵 윤선 1척이 군내 도동포(道洞浦)에 와서 정박했습니다. 일본인 관리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 영지(領地)가 되었기 때문에 시찰하러 섬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 그리고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신석호가 옮겨 소개한 보고서 부분은 ‘神西由太郎’이라고 기재-인용자), 세무감독국장(稅務監督局長) 요시다 헤이고(吉田平吾), 분서장(分署長) 경부(警部) 가케야마 간파치로(影山岩八郎), 순사 1인, 현회 의원[會議: 신석호가 소개한 보고서 부분에는 ‘會議員’. 우에다(植田武兵衛)를 가리킴-인용자] 1인, 의사·기수(技手) 각 1인, 그 외에 수행원 10여 인이 먼저 호구수, 인구, 토지와 생산물의 많고 적음을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원과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제반 사무를 물었습니다. 조사하는 모양으로 기록해 갔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군 소속
독도’라는 문구는
대한제국 정부
관리가 공문서에
‘독도’란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
울도군 부속섬으로
독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문건이다.

이 보고 도입부에 들어간 ‘본군 소속 독도’라는 문구는 대한제국 정부 관리가 공문서에 ‘독도’란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 울도군 부속섬으로 독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문건이다. ‘독도’란 명칭을 울릉도 거주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04년 9월 25일 울릉도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한 일본 『군함 니타카호 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에 “리양코르도암, 한인(韓人)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며, 본방 어부들은 줄여서 ‘리양코섬(リヤンコ島)’이라고 칭한다”라고 적힌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리양코르도암’과 ‘리양코섬’은 당시 독도를 지칭하던 ‘리양쿠르 락스(Liancourt Rocks)’를 일본식으로 음차하여 표기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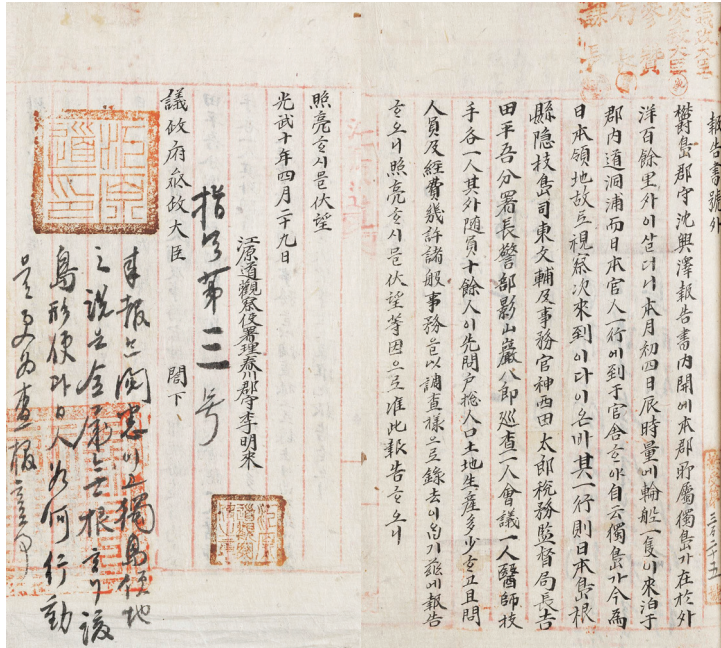
1947년 8월 16일부터 약 2주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에 일원으로 참가한 국사관장(國史館長: 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신석호(申奭鎬)는 울릉도청(鬱陵島廳)에서 심흥택 보고서의 부분(副本)을 발견하였다. 독도 영유권을 보여주는 대한제국 시기 핵심 공문서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파한 그는 1948년 12월에 간행된 학술잡지 『사해(史海)』 창간호에 「독도 소속에 대하여」란 제목의 논문에서 심흥택 보고서 부분의 내용 전체를 수록

포커스 I

하였다. 여기에 심홍택이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 “광무(光武) 10년 병오(丙午) 음력 3월 5일”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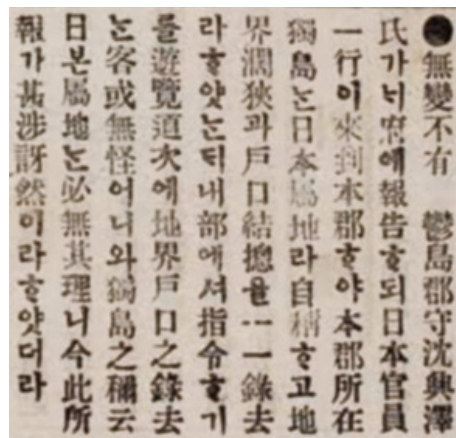
울도군수 심홍택이 발송한 보고를 접수한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李明來)는 1906년 4월 29일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후 “이를 접수하여 보고하오니 살펴 헤아려 주시기를 엇드려 바랍니다”란 문구를 추가하여 의정부 참정대신(參政大臣) 앞으로 올려 보냈다. 심홍택 보고서 부분의 작성 날짜와 비교해보면 문서를 접수하여 다시 중앙정부로 올린 이명래의 보고 사이에는 한 달의 시차가 있다. 배편을 통해 강원도까지 보내고, 문서를 접수한 다음 다시 이것을 정서하여 서울로 보내기까지 물리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준다. 당시 강원도관찰사 자리가 공석이었던 때문에 춘천군수였던 이명래가 관찰사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이 점은 ‘서리’라 쓰고, ‘강원도관찰사지장(江原道觀察使之章)’을 날인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명래가 올린 보고서가 의정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에서 편집한 문서철 『각관찰도거래안(各觀察道去來案)』 1권 안에 수록된 「보고서 호외」로 알 수 있다. 문서 접수 일자 1906년 5월 7일이었다. 심홍택이 작성한 보고서는 내부로도 전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내용은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1일 자 「무변불유(無變不有)」, 『제국신문』 1906년 5월 1일 자 「일인 무례(日人無禮)」, 『황성신문』 1906년 5월 9일 자 「울쉬보고내부(鬱倅報告內部)」에 각각 실려 있다.

1978년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규장각에서 자료를 열람하다가 처음 발견한 사람은 송병기(宋炳基)였다. 「보고서 호외」에는 이명래가 보고한 문서 내용 뒷부분에 ‘지령 제3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5월 10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은 “독도가 영지(領地: 영토)가 되었다는 말



『각관찰도거래안』, 『보고서 호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울도군수 심흥택의 내부 보고

『대한매일신보』, 『무변불류』,

1906년 5월 1일 2면

심홍택과 이명래의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접수한
내부의 판단 등에
기초하여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확인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이
'지령 제3호'로
지시사항을 최종
정리하였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해당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다. 앞서 거론한 『대한매일신보』 5월 1일 자 기사에는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내용 요약과 더불어 내부의 대응이 실려 있어 이목을 끈다. 박제순이 지시를 내리기에 앞서 내부에서도 그와 비슷한 지시를 이미 심홍택에게 내렸음을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내부는 “유람하는 중에 지계(地界)와 호구를 적어가는 일은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이상하지 않지만, 독도를 일본 속지라고 지칭해 말한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 이번에 보고한 내용은 매우 의아하다”고 지령하였다고 한다. 울도를 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상급기관으로 내부도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에 속한 지역이라고 한 일본인들의 말은 터무니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홍택과 이명래의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접수한 내부의 판단 등에 기초하여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확인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이 ‘지령 제3호’로 지시사항을 최종 정리하였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당시 의정부에서 최고 책임자는 의정대신이었으나 공식이었으므로, 참정대신 박제순이 최고 책임자로서 독도와 관련된 동향을 추가로 조사하여 보고

포커스 I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정부 공문서와 당대에 발행되던 주요 일간신문에서 심홍택의 보고 내용,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편입 사실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대한제국 국민 모두에게 중요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신석호가 울릉도청에서 열람한 심홍택 보고서 부분과 내부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원본은 안타깝게도 남아 있지 않다. 해방 정국,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인하여 시대가 혼란한 와중에 어느 사이엔가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홍택 보고서 수록 내용을 교차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고, 이것을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이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울도군수 심홍택이 육필로 작성하고 군수 인장을 찍은 보고서 정본이나 부분 원본의 행방을 찾는 일은 향후 독도 연구와 자료조사에서 남아 있는 과제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심홍택 보고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보여주는 핵심자료인데, 그중 하나를 심홍택이 기민한 상황 판단으로 기록에 남겼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박한민(朴漢珉, Park, Han-mi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한국근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상호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 조약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개항장 해관 같은 기구에 주목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 감염병 예방 등을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초대 독도박물관장, 사운 이종학 서설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사운 서설(緒說)

사운(史芸) 이종학(李鍾學, 1927~2002) 초대 독도박물관장은 필자가 담당했던 독도상 수상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자이다. 재단은 2008년 독도연구소 개소 이래 2009년부터 매해 독도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최초 독도상은 학술 부문의 독도수호상(현 독도학술상)과 활동 부문의 독도평화상(현 독도사랑상)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고인이신 이 관장은 2013년도 독도사랑상에 선정되었고, 그의 딸인 이선영 씨가 대신 수상하였다. 현재 유해는 생전의 바람처럼 독도를 응시하는 듯 울릉군 독도박물관 정문입구 옆 언덕에 고이 모셔져 있다.

이종학 관장은 독도 연구자로서의 업적과 공로 이외에 이순신, 화성(수원), 동학, ‘한일병합조약’ 무효 등과 관련된 연구에 헌신과 기여를 한 분으

포커스 I



이중학 관장의 묘소

묘소 오른쪽 건물이 독도박물관이며, 계단 오른쪽에 공덕비가 있다.



독도박물관, 향토사료관, 야외독도박물관 전경

포커스 I

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수원박물관 내 사운실에 이어 현 수원광고박물관에 별도의 사운전시실을 설치하여 이종학 관장의 업적을 후세에 알리고 있다.

이종학 관장의 별세 10주기인 2012년, 재단 독도연구소에서는 독도체험관을 부설하여 개관하였다. 이로써 이 관장의 신념과 같이 전문 독도 연구에 이어 대국민 독도 교육·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재단 독도연구소가 개소하면서 기존의 울릉군 독도박물관의 많은 독도 연구업무가 사실상 재단 독도연구소로 대체 이전되었다.

역사 연구방법에 관한 역사의 맥락과 생채기를 찾아가면서 국제법 규범을 활용하는 현재의 적극적 독도 수호 연구방법론은 이종학 관장의 신념과 실천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자비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박물관이 만들어졌고, 이후 폭넓은 계층과 분야에서 독도 연구자들이 양성되기에 이르렀다.

그간 이종학 관장의 공적을 찾고 알게 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재단 독도연구소가 개소하고 10년이 넘었음에도 단지 사후에 독도상을 수여한 것 이외에 그에 관한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재는 사운연구소 활동 역시 전무한 상태다. 이 관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필자가 전연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2000년 바다의 날 기념 제1회 독도박물관 학술 발표회장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독도침략’ 가상소설 시나리오는 이종학 관장이 언급했던 농담이 그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농담과 친화력, 추진력을 계속 실행하고 사자후하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의 서설을 시작한다.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필자는 독도 강연 시 독도 수호에 기여한 인물 7명을 소개하는데, 이종학 관장은 출생연월 기준에 따

포커스 I

라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인물이다. 이종학 관장을 접하게 된 계기는 필자가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 되면서부터인데, 생전에 그와 동고동락한 울릉군 김기백 국장의 전언이 가장 중요한 인물사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우연히 2014년 수원광교박물관 개관일에 이종학 관장의 부인과 딸, 사위 등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언론 기고문 모음집인 『역사의 이랑을 헤치며』를 구해 읽게 되면서 보다 가깝고 심층적으로 그의 삶과 혼을 알게 되었다. 2018년에는 이 관장과 함께 이른바 ‘대일민족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대일민간법률구조회 회장 지익표 변호사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민족적 과제」에서도 교차적으로 이 관장의 활약과 업적을 알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를 ‘서지학자(書誌學者)’ 또는 ‘재야사학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관장은 ‘학자’라는 호칭이 붙는 것을 못내 쑥스럽게 여겼다. 그는 자신을, 단지 세월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가는 역사적 사료들이 안타까워 이를 찾아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고서점까지 뒤지고 다니는 ‘사료수집광’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호칭(직명)으로 ‘초대 독도박물관장’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본다.

『한 줌 재 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터(사운 이종학 선생 1주기 추모 기증자료전)』(독립기념관, 2003), 『역사의 이랑을 헤치며(사운 이종학 선생 언론 기고문 모음집)』(독도박물관, 2007), 『사운 이종학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2012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수원박물관, 2012) 등에 나와 있는 사운 이종학의 생애와 업적은 한마디로 ‘선도적 독도 연구자’, ‘현대의 안용복’, ‘(사료, 공익) 기부자’이다.

2. 선도적 독도 연구자인 이종학 관장

1927년 일제강점기에 출생한 이 관장은 “역사가 천만년 누릴 정신의 옥토라면 지금 제대로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를 김매기’한다는 뜻의 ‘사운(史芸)’으로 호를 지었다. 현재의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사실상 이종학 관장이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기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초대 독도박물관장을 지낸 그는 독도의 영유권 확립에 평생을 바친 이른바 서지학자이다.

그는 1957년 서울 신촌의 연세대학교 인근에 고서점인 연세서림을 운영하면서부터 운명적이면서도 우연한 기회로 독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그는 1980년대 초부터 독도에 관한 일본 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비로 일본을 수십 차례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독도 관련 자료를 모았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일본 시마네(島根)현 관계자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한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다. 생전에 그는 “내 평생에 가장 기쁘고 통쾌한 일을 꼽으라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1945년 조국 광복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1990년 7월 2일 일본 시마네현

1927년 일제강점기에 출생한 이 관장은 “역사가 천만년 누릴 정신의 옥토라면 지금 제대로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를 김매기’한다는 뜻의 ‘사운’으로 호를 지었다.

포커스 I



일본 시마네현청 방문

오른쪽이 이종학 관장, 왼쪽이 당시 총무과장 보좌 가네시쿠(金築孝). 『아리랑』, 1996.7.



독도박물관 개관식

중앙이 이종학 관장, 그의 오른쪽은 홍석현 삼성 이사, 왼쪽은 울릉군의회 의장.

그가 단언한
“역사 사료를 근거로
한 독도 영유권의
승패는 이미 났다”는
상황에서도 독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에서 관계자로부터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우리 땅이라는 항복을 받고 온 일이다”라고 말했다.

1997년 독도박물관에 그가 평생 모았던 독도 관련 자료들을 기증하는 것에 더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울릉군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하고, 초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2000년 5월 23일 “지키지 못한 독도, 독도박물관 문 닫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독도박물관을 폐관시켜 독도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행정·입법·사법부를 총동원해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종학의 뜻은 확실했다.

“독도에 대한 무관심에 항의하는 겁니다. 개관 3년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우나, 정부가 독도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앞서 그가 단언한 “역사 사료를 근거로 한 독도 영유권의 승패는 이미 났다”는 상황에서도 독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¹

1 「KBS 인물현대사: 역사와 영토를 빼앗길 수 없다. 사운 이종학」, KBS, 2004.9.17.

3. 이순신 연구자, 사운

『상설전시도록: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박물관, 사운이종학사료관』(2008)에는 이종학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자각은 충무공 이순신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한다. 그는 “내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토 문제나 한일관계사나 기타의 문제도 모두 이순신 장군 연구과정에서 부수된 결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²

이 관장은 『난중일기(亂中日記)』를 백 번도 더 읽으면서 번역본의 오역을 바로잡았고, 이순신이 머물렀던 섬의 위치를 찾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길을 나섰다. 이순신이 수전·육전에 모두 능했다는 사실, 거북선의 실체, 일본이 파괴한 명량대첩비 내용, 쌍룡검의 실물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고상안(高尚顔)의 『태촌선생문집(太村先生文集)』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의 용모 묘사 부분을 근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한 ‘이순신 연구자’이기도 했다.

길곡 서인달 씨가 건네준 충무공 친필의 〈한산도가〉는 그가 목숨처럼 보존하다 현충사에 기

2 손보기, 1996, 「30년業績정리를 축하하며」(독도박물관, 2007, 『역사의 이랑을 헤치며』 수록).

증했다. 그는 <한산도가>를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시가 한시였으며, 이를 쓴 시기와 장소가 1595년 한산도가 아니라 정유재란(1597~1598)으로 한산도를 빼앗긴 뒤인 1597년 8월 보름 전남 보성 열선루(列仙樓)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 그는 사료를 더 꼼꼼히 찾아 1595년(을미) 8월은 한 달 내내 장마가 계속되어 보름달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 관장의 끈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학계 사람들 중 일부는 ‘재야사학자’, ‘향토사학자’ 등으로 총칭하는 분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홀시하는 경향을 가진 이도 있었다. 그들에게 이 관장은 한마디로 ‘박사’, ‘교수’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 관장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1597)에 임전했을 때 배의 수는 『조선왕조실록』 장계에 근거할 때 ‘12척’이 아닌 ‘13척’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는데도 말이다.

일본 시마네현과
일본 국회 등 곳곳을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방대한 자료가
‘보따리장수’의 붓집
정도로 취급되기도
했다고 한다.

4. 현대의 안용복, 이종학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이 관장은 독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큰 업적은 ‘재야 서지학자’라는 편견의 굴레



대일민족소송 기자간담회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일본 시마네현과 일본 국회 등 곳곳을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방대한 자료가 ‘보따리장수’의 붓짐 정도로 취급되기도 했다고 한다. 공개를 꺼리는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선생의 노력을 어떤 호사가는 트집거리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선생의 성품이기도 했지만, 증거가 명백한 자료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계의 잘못된 배타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서양 최초로 독도를 발견한 배는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코르(Liancourt)호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찾아낸 자료에 의해 7개월 앞서 1848년 미국 포경선 체로키(Cherokee)호가 독도를 발견했다는 것이

포커스 I



〈조선전도〉

김대건 신부는 울릉도를 'Oulnengto'로, 독도는 'Ousan'으로 표기했다. 독도박물관

밝혀졌다. 지금도 이 관장이 밝혀낸 체로키호는 리앙코르호에 밀려 독도 역사는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이 관장의 업적은 폄하되었지만 그의 업적을 빼놓은 독도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02년 별세하기 전까지 ‘올바른 역사찾기운동’을 펼쳤던 이종학 관장의 가장 큰 업적은, 많은 이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독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데 평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독도박물관에 보관·전시된 자료를 통해 일반인이나 학계에 독도 연구 활성화의 기틀이 되었고, 한국 독도 영유권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종학 관장의 수향루 복원 과정과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일 첫 입장객 사례에서 보다시피 역사 복원에 대한 열정은 역사적으로 독도 수호 인물 중 한 사람인 안용복에 버금간다. 1990년 시마네현청을 단신으로 찾아가서 업무 담당자를 설복시키고, 1990년대 말 대일민족소송의 증인 등으로 참여한 자발적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이 관장은 영토·해양과 관련 있는 수로지, 지도류를 다수 발굴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시인한 9종의 『일본해군성 수로지』, 『조선처분찬론』, 『조선연안간이수로지』, 백두산정계비 설치 경위를 적어 놓은 1740년의 『백두산일기』 등이 있다.

이 관장은 『대동여지도』가 고산자 김정호의 단독 제작이 아니라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신헌(申憲)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뿐만 아니라 <동국지도> 관련 언론기사 고증에서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³ 특히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를 1978년 프랑스로부터 도서관에서 발굴·복사하여 언론 등에 공개했다.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조선전도>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지도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조선 곳곳의 지명을 우리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라고 했다. 이 지도는 이종학 관장이 지도의 존재를 확인,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⁴ 현재 <조선전도> 복사본은 독도박물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8년 3월 미군정청 상무부 지질광산연구소에서 간행한 울릉도 학술조사 보고서인 『울릉도-독도조사보문(鬱陵島-獨島調查報文)』은 그 유일 원본이 현재 독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이 관장의 낙관이 찍혀 있다. 이 보고서는 1948년 3월 미군정청 상무부 지질광산연구소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물리탐사과에서 광지기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옥승식(1947년 제1차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참가자)이 집필한 것이다.

영토에 대한 이종학 관장의 관심은 실로 다양했다. 그는 독도, 간도, 녹둔도(鹿屯島) 그리고 대마도까지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특히 이 관장은 평소 ‘동해’가 아닌 ‘조선힬’를 주장했으며 간도 및 녹둔도 영유권 문제까지 정열적으로 연구하고 학자들과 교류했다.

3 『중앙일보』, 1987.4.3.

4 『카톨릭시보』, 1978.9.24.

5. 사운 이종학의 개인사료 기증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이 관장이 가장 힘을 기울인 분야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료를 기증한 곳이 충남 아산의 현충사였다. 서인달 씨가 건네준 충무공 친필의 <한산도가>를 포함하여 1980년대부터 4차에 걸쳐 1998년까지 900여 점을 현충사에 기증했다.

이 관장은 1983년부터 1997년까지 『경향신문』 창간호(1906.10.19)와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 외에도 총 18차례에 걸쳐 2,306건(〈대동여지도〉 1,500만 원 별도)에 달하는 자료를 독립기념관에 무상 기증하였다.

1994년 동학농민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학백주년기념 이종학 소장 자료전’을 개최한 뒤 전시자료 500여 점 모두를 천도교 총부에 기증하였다(1995.5).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 ‘정조대왕 및 충·효 자료전’ 개최 후 『궁원의』 등 400여 점을 기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시 사재 1억 6,000만 원을 들여 정조시대의 화성건설공사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200년 전 원본 그대로의 재질과 크기로 영역해서 100질을 전 세계 주요 도서관과 학술기관에 보냈다. 나머지 100질은 국내 연구자와 기관에 기증하여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7년 독도박물관은 그가 30년 동안 모은 독도 관련 자료 351종(512점)으로 건립되었다. 추후 기증된 것은 모두 1,300여 점에 이른다. 또한 개관 2년 후인 1999년 야외독도박물관을 자비로 완공하여 울릉군에 기증하였다.

1999년 수항루 사진, <한산도가> 등 이순신 관련 자료를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에 기증하고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2001년 3월에는 ‘일제의 조선강점 비법성에 대한 남북 공동자료 전시



수원 화서동 자택 서재에서

회'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개최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위한 자료 2,000여 점을 북한 사회과학원에 기증하였다.

2004년 1월 이종학 관장 사후에 그의 유지를 받들어 유족들이 생전에 그가 소장한 자료 2만여 점 모두를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수원시에서는 수원박물관 내에 그의 사료관(사운실)을 따로 두어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이 관장은 일본 국회도서관에도 고지도 자료 67점을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빛도 안 나는 일
하느냐고 그러지만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알아야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그는 웃었다.

이 관장은 향토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앞장 서서 1986년 고향인 화수리의 3·1운동 유적지에 비문을 직접 지어 기념비를 건립했고, 경기도 지역의 충효 유적지를 발굴하여 복원하였다.

장학사업도 오랫동안 계속해 수원 화서동 소재 고아원인 동광원을 20여 년간 후원하였고, 고향의 초·중·고 학교에 장학사업을 펼쳤다.

애써 모은 독도 관련 일본 고문서와 지도, 충무공 사적 관련 유물, 동학농민운동·독립투쟁사 관련 자료 8,000여 점을 독립기념관과 현충사, 동학혁명기념관 등에 기증한 사실도 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모든 비용을 스스로 대며 벌인 일들이지만 대가나 명예를 바란 것은 아니다. “왜 빛도 안 나는 일 하느냐고 그러지만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알아야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그는 웃었다.⁵

이제 그의 어록에 나타난 신념과 방향성을 되새기면서 필자의 독도 수호 인물사를 맺기로 한다.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발굴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입을 연다. 『조선일보』, 1985. 3. 15

사료 연구를 시작한 것은 옛날 일을 보다 정확하게 살피고 보자고 생각한 것이 동기가 됐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

5 「한겨레가 만난 사람: 역사의 텃밭 김매는 게 내 직업」, 『한겨레신문』, 2001. 7. 8.

해서도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토사학자를 찾아서」, 『경인일보』, 1987. 4. 15

자기 소유물을 내 것이라 규정짓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생을 모아 놓은 게 역사와 관련된 것뿐이고 1만 점이 넘다 보니 이건 내 것이 아니지요. 또 내 것이라 하여 대를 물리면 뭘합니까.

「숨겨진 역사 발굴 30년」, 『세계일보』, 1989. 8. 6

역사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잊혀버리고 맙니다. 저는 저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이미 잊혀져가는 역사가 하나하나 복원된다는 사실에 비길 데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더구나 우리 영토에 관한 자료들은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1985. 3. 15

고서 등을 검토하다 보면 현재 왜곡된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특히 일제에 의한 왜곡이라는 점에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일제발톱’ 공개, 왜곡 역사 추적 30년」,

『경기일보』, 1995. 8. 18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것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도, 개인적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역사를 바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장군 출아 2천 7백여 섬 답사」, 『인천일보』, 1996. 9. 17

“자기 소유물을 내
것이라 규정짓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생을
모아 놓은 게 역사와
관련된 것뿐이고
1만 점이 넘다
보니 이건 내 것이
아니지요. 또 내 것
이라 하여 대를
물리면 뭘합니까.”

포커스 I

역사가 천만년 누릴 정신의 옥토라면, 지금 제대로 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텃밭 김매는 게 내 직업」, 『한겨레신문』, 2001. 7. 8

최근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채 살아가고 있다. 회갑의 나이에 작성한 이 글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선후배 동료 독도 연구자들에게 일견하여 위로와 격려라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했다. 독도 연구라는 신비함 속에서 진실과 사실 탐구를 사운연구소에서 모두 함께하기를 바란다.



유하영(劉夏榮, Yu, Ha-Young)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995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상 남북한교역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박사후 연수연구원(Post-Doc.)을 지냈다. 2008년 재단 독도연구소가 개소하면서 입사하여 현재까지 15년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 2006~2007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독도논총』을 창간하였으며,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국제해양법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독도를 외친 재일동포 운영하¹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식민지 청년’에서 다시 재일동포로

운영하는 1926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손위에 형을 따라 도쿄(東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1945년 방학 때 한국의 집에 왔다가 광복을 맞았다. 그는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았다. 그 무렵 광주에 조선대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는 그 학교 야간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선배의 소개로 광주에 있는 학교의 교사로 취직하여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사로 재직하던 중 시위에 참가한 학생을 두둔하다가 공산주의자로 몰려 도망치듯 일본으로 건너갔다. 1949년 일이었다.

그는 오사카(大阪)에 정착하여 이듬해(1950) 교토(京都)대학에 입학했다. 등하교 길이 멀어서 집에서 가까운 오사카의 간사이(關西)대학에 다시

¹ 홍성근, 2020, 『운영하 할아버지, 오사카에서 독도를 외치다』, 동북아역사재단 참고.

진학하여 공부했다. 그 후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오사카 지역 한인 경제 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의 마음에는 야반도주하듯 떠나 온 고향 산천이 늘 있었고, 그것은 고국에 대한 사업 투자로 이어졌다. 그러나 고국 투자가 그의 뜻대로 되지 못했다. 투자가 과도했던 탓인지,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지고 사업을 접게 되었다.

그의 사업 실패는 고스란히 자녀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그는 한동안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살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동네 다방에 가서 신문을 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중 2005년 3월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에서 2월 22일을 소위 ‘죽도(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는 그때부터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운영하는 ‘죽도의 날’ 제정이 비단 시마네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또는 보수 우익 세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때마침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후쇼사(扶桑社) 출판사의 중학교 공민(公民)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그에게는 그 뉴스가 가슴에 꽂히는 비수 같았다.

일본에 살고 있는 그의 자손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비통함이 엄습해왔다. 더 이상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독도 운동에 매진한다면 재일동포 할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운영하는 1945년 광복의 때를 되돌아보았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식 교육만 받고 살아온 그였다. 그런 그가 당시 한창 무르익기 시작한 광주지역 청년단 활동에 참가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그때를 기억하며, “일본의 군국소년이 하

포커스 I

루 아침에 조선의 애국자로 변신했다”고 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조부에게 따지듯 대들었다.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그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에 벼슬을 했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손자에 증손자까지 둔 운영하는 두려웠다. 1945년 그가 조부에게 한 질문이 이제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할아버지는 독도운동 안 하고 뭐 하셨어요!”라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독도운동을 하기로 다짐했다.

2. ‘독도의 진실 6개항’

그는 도서관을 드나들며 독도에 관한 자료를 모으며 밤낮없이 독도에 관해 공부했다. 그리고 독도 관련 핵심 주장을 6개항으로 정리했다. 이를 하여 ‘독도의 진실 6개항’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간에 울릉도를 둘러싸고 다툼(울릉도 쟁계)이 일어났을 때, 일본 도쿠가와(徳川)막부는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로써 울릉도 쟁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다루어졌다.

둘째, 19세기 말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지적 판찬사업을 할 때, 울릉도 외 일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지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커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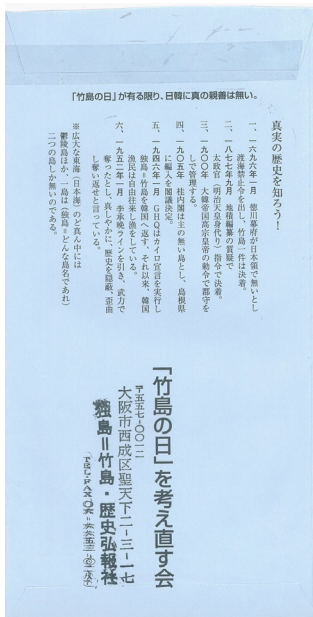
셋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때 칙령으로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토록 했다.

넷째,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여 각의결정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기지로도 사용했다.

다섯째,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카이로 선언의 이행조치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했다. 반면 한국 어민들은 자유롭게 독도를 왕래하며 어업을 했다.

여섯째,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했다며 그럴듯하게 독도의 역사를 은폐,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100년 전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할 때와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듭 탈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하는 요약 정리한 ‘독도의 진실 6개항’을 우편봉투에 인쇄하여 넣거나 홍보전단지로도 만들었다. 커다란 현수막으로 만들어 차량에 붙이거나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홍보판으로 만들어 집 앞 창문에도 붙였다. 그것을 보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의 설명에 공감하는 일본인들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독도 역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그는 “독도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지 않는 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운영자가 만들어 보낸 연하장과 우편봉투
연하장과 우편봉투에 '독도의 진실 6개항'을 담고
한·일 간 진정한 우호친선을 위해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자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운영하 사진 제공

3. 독도 관련 단체 조직

운영하는 역사 강연회나 공부 모임을 찾아다니며 ‘독도의 진실 6개항’으로 요약된 독도에 대한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공유해나갔다. 이런 활동이 계기가 되어 재일동포와 일본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어 이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竹島の日を考え直す会)’이다.

그는 이 모임에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모임의 대표인 그를 비롯하여 이사, 감사 등 첫 임원은 16명이었고, 일본인이 9명, 재일동포가 7명으로 일본인이 오히려 더 많았다. 모두 10개조로 된 회칙도 만들고 그 안에 모임의 목적도 분명히 규정했다.

본회는 한·일 양국의 친선을 중요시하고,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시마네현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학습, 여론 계발, 운동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매년 시마네현과 일본 정부에 ‘죽도의 날’을 폐지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2013년 설립 당시 회원이 141명이나 되었다. 이 중에 재일동포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가 기존에 활동했던 ‘독도=죽도문제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이 많았다.

2013년 2월 15일 오후 6시 역사적인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의 발족식 겸 첫 행사로 ‘죽도의 날’ 대응 행사가 열렸다. 그가 사는 오사카 니시나리(西成)의 구민센터에 약 100명이 모였는데,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거의 반수씩 되었다. 그날 행사장의 전면에는 “죽도의 날을 취소

포커스 I



類似様式第六 (第十四条関係)

道路使用許可申請書

平成30年 2月9日

大阪府 西成 警察署長 殿

住所 大阪府西成区東天下2-3-17
申請者 氏名 代表 平澤 隆
(実印) 06-6653-0280

道路使用の目的 独立型自動販売機設置工事の仮設工事
場所又は区画 大阪府西成区

期 限 平成30年2月20日9時から 平成30年2月20日16時まで
(毎日午前・午後 時から 午後 時まで)

方法又は形態 トラック機新築工事の仮設工事
経 由 地 図 トラック機設置工事の仮設工事
機 器 住 所 大阪府西成区東天下2-3-17
機 器 住 所 平澤 隆 電話 06-6653-0280

第2852号 道路使用許可証
3029
上表(仮設工事)を、ただし、次の条件に該当すること。
① 別紙のとおり。

30 2 16 日
大阪府 西成 警察署長 明

※1 申請書に提出する写真及び、申請書に提出しない写真、並びに、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3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4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5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6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7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8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9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0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1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2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3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4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5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6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7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8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19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0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1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2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3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4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5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6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7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8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29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30 申請書の提出後、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申請書に提出された写真との類似性を確認すること。

오사카 시내를 돌며 트럭 홍보를 하는 운영하
매월 22일 오사카는 물론이고, 시미네현 '죽도의 날'에는 마쓰에(松江)까지 가서 홍보를 했다. 트럭 홍보를 할 때는 매번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왼쪽 문서가 트럭 홍보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 신청서와 허가증이다. 운영하 사진 제공

하고 경상북도와 시마네현과의 자매관계를 복원 하라”라는 구호가 걸렸다.

운영하는 이 모임을 통해 일본 내에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독도의 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자 했다. 그는 ‘독도의 진실 6개항’을 담은 현수막을 트럭에 내걸고 오사카 시내를 다녔다. 그리고 시마네현이나 외무성, 문부과학성에 항의편지를 보내고 일본 언론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광고 형태로 게시했다. 그의 적극적인 활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단체 내부에서 하나둘 생겨났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그냥 물러설 그가 아니었다. 따지고 들며 논쟁을 벌였다. 그것은 건설적인 방안을 찾아가려는 그의 방식이기도 했다. 결국 2014년 ‘죽도의 날’ 대응 행사를 끝으로 그는 대표직을 사임하고 그 모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지만,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당초 모임의 설립 취지를 계속 살려나갔다. 모임에서는 새로운 대표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회의원의 초청을 받아 한국 국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단체와 협력을 하며 한국

그는 ‘독도의 진실 6개항’을 담은 현수막을 트럭에 내걸고 오사카 시내를 다녔다. 그리고 시마네현이나 외무성, 문부과학성에 항의편지를 보내고 일본 언론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광고 형태로 게시했다.

과 일본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4. “일본 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답이다”

운영하는 독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일을 계획했다. 그즈음 한국의 독도 연구자 중 한 분이 독도 관련 상을 수상하고 그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그에게 후원했다. 그 후원금은 그에게 독도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트럭 홍보였다. 그는 ‘독도의 진실 6개항’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트럭에 붙이고 오사카 시내를 다니고 또 독도 관련 홍보지를 배부하며 외쳤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제는 이를 근거로 ‘죽도의 날’을 제정하여 ‘한국이 무력으로 빼앗아갔으니 도로 탈환하자’고 한다. 이는 독도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죽도의 날’ 제정으로 그동안 한·일 양국이 잘 쌓아왔던 우호관계가 맥없이 무너지고 교류가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에 ‘죽도의 날’이 있는 한 한·일 간에 진정한 친선우호는 없으며 ‘죽도의 날’은 한·일 간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 2014년 6월 22일 발족한 ‘독도=죽도역사홍보사’였다. 그가 조직한 단체로는 ‘독도=죽도문제연구회’,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에 이어 세 번째 조직이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긴요하다는 사실과,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폐지하고 경상북도와 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의 실현을 단체의 목적으로 했다.

시마네현 ‘죽도의 날’에는 항의시위차 직접 트럭을 타고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 마쓰에까지 가서 홍보를 했다.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8년 2월 22일에도 갔다. 우익 선전차량에 맞서 ‘독도의 진실 6개항’이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마쓰에 시내를 돌며 시민들에게 ‘독도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그는 2019년에도 시마네현에 가서 항의시위를 벌이고자 했으나, 트럭과 운전사를 마련할 비용이 없어 가지를 못했다.

홍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다른 방안을 생각했다.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홍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곳이 오사카 텐노지(天王寺)공원이다. 그는 매월 22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공원에서 홍보를 하고자 했다. 매월 22일에 홍보활동을 하고자 한 것은 시마네현 ‘죽도의 날’이 2월 22일이기 때문이다. 2월 22일에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22일에 2월 22일을 생각하며 홍보활동을 하고자 한 것이다.

텐노지공원은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다. 그 공원 한 켠에서 ‘독도의 진실 6개항’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독도 홍보를 했다. 그는 주변의 재일동포나 일본인 지인들의 도움을 받긴

2014년 6월 22일
발족한 ‘독도=죽도역사
홍보사’였다. 그가
조직한 단체로는
‘독도=죽도문제
연구회’,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에 이어 세 번째
조직이었다.

포커스 I



第1号様式 (第1条, 第4条関係)

行為
許可申請書 (新規・更新)
占月
平成29年 2月 20日

大阪市長様

申請者住所 大阪府西成区豊天下2-3-17
(法人にあっては法人の本拠地)
独島=竹島の歴史愛好会
(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代表者(代表者)))
氏名 代表者 深妻 隆夫
生年月日 昭和三十二年 八月 五日
(法人にあっては代表者の生年月日, 行為許可申請の専任にのみ記入)
職業 独島=竹島の歴史愛好会
(法人にあっては其業務) 代表
電話番号 06-6658-0280

大阪府公園条例 第4条第1項
の範囲に於て, 次のとおり許可申請します。
都市公園法 第6条第1項

① 場 所	天王寺公園内、指定場	
② 目 的	独島=竹島の歴史愛好会による宣伝活動。	
行為	③ 内容・種類	ご当地の福新茶と旗の街頭活動
	④ 期 間	平成 29 年 2 月 22 日 午前・午後 9 時 00 分から 平成 29 年 2 月 22 日 午前・午後 17 時 09 分まで
占拠物件の 種類・数量	占拠物件	2000kWh 福新茶、旗、園遊台
	⑤ 期 間	平成 29 年 2 月 22 日 午前・午後 9 時 00 分から 平成 29 年 2 月 22 日 午前・午後 17 時 00 分まで
⑥ 占拠物件の 構造・片数	布製福新茶の旗 旗 1 面	占拠物件 旗 1 面
⑦ 設置工事の 実施方法	旗の設置 旗 1 面	設置の着手及び 完成の時期 平成 29 年 2 月 20 日完成
⑧ 影響公園の 復旧方法	旗の撤去 旗 1 面	工事の着手及び 完成の時期 平成 29 年 2 月 20 日完成

行為許可申請については、⑥から⑧まで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占月許可申請については、⑤及び⑧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덴노지공원에서 독도 홍보를 하는 운영하

오사가 덴노지공원에서 독도 홍보물을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독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회 덴노지동물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왼쪽 문서는 독도 홍보를 위해 공원사무소에 제출한 행위·점용 허가 신청서이다. 운영하 사진 제공

했지만, 이미 90세가 넘은 나이에 시간이 갈수록 거동조차 불편했다. 그럼에도 삼륜자전거를 타고 몇 시간이 걸리는 니시나리의 집과 덴노지공원을 오갔다. 갔다 오면 하루가 걸렸으나 그 어느 것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22일이 되면 어김없이 덴노지공원에서 독도 홍보를 했다. 그의 꿈은 일본에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옥외 홍보간판과 독도역사자료실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22일만이 아니라 늘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한·일 우호친선을 염원하며

운영하는
2019년 12월
독도평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제7회
독도평화대상의
동도상을 수상했다.
일본 현지에서
'죽도의 날'이 갖는
폐단을 홍보하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진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운영하는 2019년 12월 독도평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제7회 독도평화대상의 동도상(東島賞)을 수상했다. 일본 현지에서 '죽도의 날'이 갖는 폐단을 홍보하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진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그는 몸이 불편하여 독도평화대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독도 활동에 대한 굳은 신념을 담은 수상 소감문을 전해왔다. 그가 거듭 강조했던 것은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 역사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포커스 I



오사카 시내 홍보

운영하는 때에는 트럭을 타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오사카 시내를 다니며 '죽도의 날이 있는 한 한·일 간 진정한 친선우호는 없다고 호소하였다. 운영하 사진 제공

그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2020년 2월 22일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때 마쓰에 시내를 트럭을 타고 돌며 독도 역사의 진실을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마네현에 가지 못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가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그에게도 닥쳤다. 외부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그만큼 그의 몸도 불편하고 굳어져 갔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져만 갔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2020년 3월 22일 덴노지공원에서 독도 홍보를 했다. 그리고 독도평화대상으로 받은 상금 중 일부로 일본어 잡지에 독도 광고를 게재했다. 2020년 4월이었다.

포커스 I

독도는 한국 땅,
일본에서 독도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이 땅에서 한 마지막 독도 홍보였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22일 95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그가 소천한 날도 22일이었다. 아마 그날도 마음은 텐노지공원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다.

‘죽도의 날’이 있는 한 한·일 우호친선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도 역사의 진실입니다.

생전 그에게 일본에 옥외 홍보간판을 세우는 것 외에 다른 바람이 있는지 여쭙 적이 있다. 그는 당신의 몸을 병원 실험용으로 기증하기로 했다며, 실험 후 남은 뼈조각이 있으면 갈아서 독도 주변 바다에 뿌려지면 좋겠다고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열을 다 바친 재일동포 운영하는 뼈한 조각이라도 독도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그로 인해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친구처럼 우애 있게 사는 세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것 같다.



홍성근(洪聖根, Hong, Seong Keu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독도와 관련된 국제법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독도학회 회장, 경상북도 독도위원 및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의 생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이 최초로 독도에 입도한 시기는 1964년 2월로 알려져 있다. 시간적 배경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으로, 1951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공포한 평화선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총 4회에 걸친 구상서(1953. 7. 13, 1954. 2. 10, 1956. 9. 20, 1962. 7. 13)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직후였다.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서 사람의 거주와 거주시설의 중요성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수산업 종사자였던 최종덕은 독도에 입도한 이래 수산물 생산과 생활기반 시설 확충에서 나아가 일본의 독도 침탈 망언에 맞서 독도 주민 제1호로 주민등록을 하였다. 이처럼 최종덕은 자신의 활동이 독도에 대한 실효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이 최초로
독도에 입도한
1964년 2월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도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서 사람의
거주와 거주시설의
중요성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적 지배의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이자 궁극적으로
는 독도 수호자의 삶이라고 인식했다. 그의 실천
과 인식은 한국 독도 수호사에서 그를 주요 활동
가로 평가함에 손색이 없기에 ‘영원한 독도인’ 최
종덕의 생애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최종덕의 생애

(1) 출생

최종덕은 1925년 5월 1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아버지 최인중과 어머니 황재순 사이에서 출생하여
1930년 가족과 함께 울릉도로 왔다는 설이 있으나,
2010년 9월 16일 발행된 제적등본에는 1925년
5월 1일 울릉군 남면 사동 53번지에서 출생한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83년 제작된 KBS 특집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에서 그가 평양에서 출생
하여 1930년 울릉도로 이주하였다고 증언하여¹
전자의 타당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 성장

울릉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최종덕은 1968년
아버지의 사망 이전부터 주로 어머니와 함께 오
징어, 산채 등 울릉도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

¹ 김호동, 2012,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경인문화사, 29쪽.

포커스 I

최종덕은 1965년부터 독도를 본거지로 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독도 주민으로 등록하기 위해 1977년 이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1981년 10월 14일 정식으로 독도 전입이 받아들여져 부인, 딸과 함께 1가구 3인 가족으로 구성된 법적으로 독도 최초 주민이 되었다.

업에 종사하였다. 최종덕은 1944년 3월 24일 울릉도에 살던 조갑순과 결혼한 후 교육문제로 아내와 자녀들은 대구에 거주시켰으며, 자신은 어머니와 울릉도에서 거주하였다.

최종덕의 독도 입도 전 울릉도 생활 당시 선박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도르래 개발, 오징어 선박용 집어등과 전복 양식을 위한 수중 전기기술 개발 등 발명가로서 재능을 발휘했던 일화를 많은 주민들이 기억하여 증언하고 있다.²

(3) 독도 생활

최종덕은 1964년 2월 초에 독도 어장 채취권을 가진 사람들과 독도에 첫 입도하여 물골에서 약 90일간 생활하였으며, 1965년 3월 울릉군 수협 도동어촌계로부터 독도 공동어장 채취권을 획득하면서 이후 22년간 이어지는 독도에서의 어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는 1965년부터 독도를 본거지로 하여 생활하게 되었지만 한동안 독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다가, 1977년 이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1981년 10월 14일 법적으로 부인, 딸과 함께 1가구 3인 가족의 독도 최초 주민이 되었다.

² 경상북도, 2009, 『독도를 지킨 사람들』, 201~202쪽.

포커스 I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http://www.dokdoin.com/>)

포커스 I



최종덕과 딸 은채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http://www.dokdoin.com/>)

(4) 사망

1987년 9월 초 다이아나 태풍으로 파손된 서도의 집과 선박 보관장소인 선가장 시설 복구를 위해 대구에 자재를 구입하러 갔다가 울릉도로 복귀하던 중 포항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직후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1987년 9월 23일 별세하였다.

3. 최종덕의 독도 생활

(1) 독도 입도 적응기(1964~1966)

최종덕은 최초 독도에 입도한 1964년 2월 당시 사전답사 형식으로 서

최종덕은 독도 입도 이후 독도 생활의 필수요건인 식수, 거주지, 기반시설에 대한 개척을 비롯해 독도 유인도화를 위한 독도 최초 주민등록 등 독도 생활과 활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서 국제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 물골에서 생활하면서 독도에서 장기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이후 1965년 3월 울릉군 수협 도동어촌계 독도 공동어장 채취권을 획득하고, 물골로 이주하여 독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최종덕이 입도 후 제일 먼저 시도한 작업은 첫째, 식수 확보를 위한 물골 정비, 둘째, 안정된 주거를 위한 입지의 확보였다. 따라서 시간이 나면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주거입지를 찾는 데 노력하였다. 최종덕은 섬 주변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현재의 주민 숙소 자리를 발견하고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하였다.

(2) 독도 생활 정착기(1967~1978)

1967년 현재의 주민 숙소 자리에 토담을 쌓고 슬레이트와 함석을 얹은 집을 지어 덕골로 이사하면서 독도에 10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삶의 기반을 획득하였다. 독도에서의 삶이 안정되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덕골 산 중턱에 문어 건조장을 건립하여 장기적인 공급 여건 구비를 비롯하여, 전복 양식 배양법을 개발하여 대형 전복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 추진, 특수어망 제작, 수중양식장 개발 등을 통해 독도에서의 어업에 대한 전문가이자 연구자가 되어 점차 '독도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

3 김호동, 2012, 앞의 책, 26쪽.

(3) 독도 주권 인식기(1979~1987)

1979년부터 우리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동도 공사를 추진하게 되자, 최종덕은 5월 이후부터 주로 독도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중심에 위치한 독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을 통해 독도수호자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그의 인식은 1981년 10월 14일 독도의 당시 주소인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67번지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1가구 3인 가족의 독도 제1호 주민이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후 물골 샘 및 방파제 공사, 동도 헬기장 및 선착장 공사, 물골 길 998계단 공사, 동·서도 간 유선전화 연결 등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개척자로서 활동하였다.

4. 최종덕의 독도 인식과 활동

(1) 최종덕의 독도 수호 인식

최종덕의 입도 이후 독도에서의 생활상을 보면, 첫째, 식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물골의 정비, 둘째, 양호한 주거지의 확보를 위한 덕골로의 이사, 셋째,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 넷째, 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보, 다섯째, 우리 정부가 추진한 동도 공사에 참여 등, 자신의 활동이 독도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독도 수호자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자 최종덕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서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1981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독도 최초 주민이 되었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사람이 거주해야만

최종덕은
독도지킴이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선구적인 독도
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등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몸소 기여함으로써
후속적인 독도 거주와
주민등록 이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진 최종덕의 독도 정착은 대내외적으로 무인도로 인식된 독도를 유인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⁴

(2) 최종덕의 독도 활동 평가

최종덕의 독도 생활은 독도 입도 적응기(1964~1966), 독도 생활 정착기(1967~1978), 독도 주권 인식기(1979~1987) 등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독도 입도 이후 적응, 정착 및 인식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독도 생활의 필수요건인 식수, 거주지, 기반시설에 대한 개척을 비롯해 독도 유인도화를 위한 독도 최초 주민등록 등 최종덕의 독도 생활과 활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서 국제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최종덕은 1964년 독도 입도 이래 식수 확보와 주거지 정비, 해산물 채취 및 양식사업, 물골 샘 및 방파제 공사, 동도 헬기장 및 선착장 공사, 물골 길 998계단 공사, 동·서도 간 유선전화 연결 및 주민등록 등 대한민국 정부 승인하에 추진한 활동 외에도 우리 정부가 시행한 동도 공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의 산증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1981년 10월 14일 최종덕 가족의 주민등

4 이범관 외, 2012,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의 사상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0(2), 366쪽.

록 신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국가 권능의 행사이자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의 명확한 근거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독도지킴이로서의 최종덕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등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최종덕 가족의 독도 거주와 주민등록이 선례가 되어 사위인 조준기가 1986년 7월 8일 같은 주소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최종덕과 함께 어로활동을 하던 김성도·김신렬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에 주소를 독도로 옮겼다. 이후 최종찬(1991.6.2~1993.6.7), 김병권(1993.1.6~1994.11.7), 황성운(1993.1.7~1994.12.26), 전상보(1994.10.4~1994.12.18) 등이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최종덕의 선구적인 독도 유인도화의 기여는 후속적인 독도 거주와 주민등록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99년 시마네현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등재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범국민 호적 옮기기 운동’이 한국에서도 전개되어 약 2,000여 명이 호적을 독도로 옮기게 되었다. 2019년 12월 기준 독도 주민등록 인구는 14세대(14명)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자료

5 울릉군, 「독도 주민 등록」, 『디지털울릉문화대전』(<http://ulleung.grandculture.net/ulleung/dir/GC01500695>, 2022. 12. 30)

독도 최초 주민이자
영원한 독도인으로
남아 있는 최종덕의
62년 전 생애에서
1965년부터 본격화된
만 22년의 독도에서의
생활과 독도 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사에서
유인도로서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호적부 폐지 후 대체된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3,555명이다.⁵

5. 나가며

독도 최초 주민이자 영원한 독도인으로 남아 있는 최종덕의 62년 전 생애를 독도에서의 생활과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64년 최초 입도 이래 1965년부터 본격화된 최종덕의 만 22년 독도에서의 생활과 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사에서 유인도로서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요컨대, 수산업 종사자였던 최종덕이 독도에 입도한 이래 수산물 생산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에서 나아가 일본의 독도 침탈 망언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서 독도 주민 제1호로 주민등록을 통해, 독도 수호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적으로 활동한 삶의 궤적은 헌신적 소명의 숨은 노고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전제에서 최종덕이 독도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통해 기여하고자 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국가주권(sov^ereignty)은 평화적(peaceful), 실제적(actually),

6 Marjorie M. Whiteman, 1965, *Digest of International Law*,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1032

7 김호동, 앞의 책, 269쪽

포커스 I

계속적(continuous), 충분히(sufficient) 표시되고(express), 행사되어야(display) 한다는 법리를 입증한 것이다.⁶ 그러한 최종덕의 독도 거주 및 관련 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종덕은 한반도의 절반과 독도 중 어느 것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독도를 택하겠다고 답할 정도로 우리 땅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꾼 인물이며, 우리 청년들이 독도를 지켜나갈 것을 믿은⁷ 영원한 독도인이었다.



도시환(都時煥, Doh, See-hwa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을사늑약과 강제병합 등 주권 침탈의 불법 규명 및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협정 관련 피해자 중심 해결을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법리를 연구하고 있다.

포커스 II

고지도로 보는 독도

한국 고지도 속의 독도

오상학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일본 고지도 속의 독도

심정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서양 고지도 속의 독도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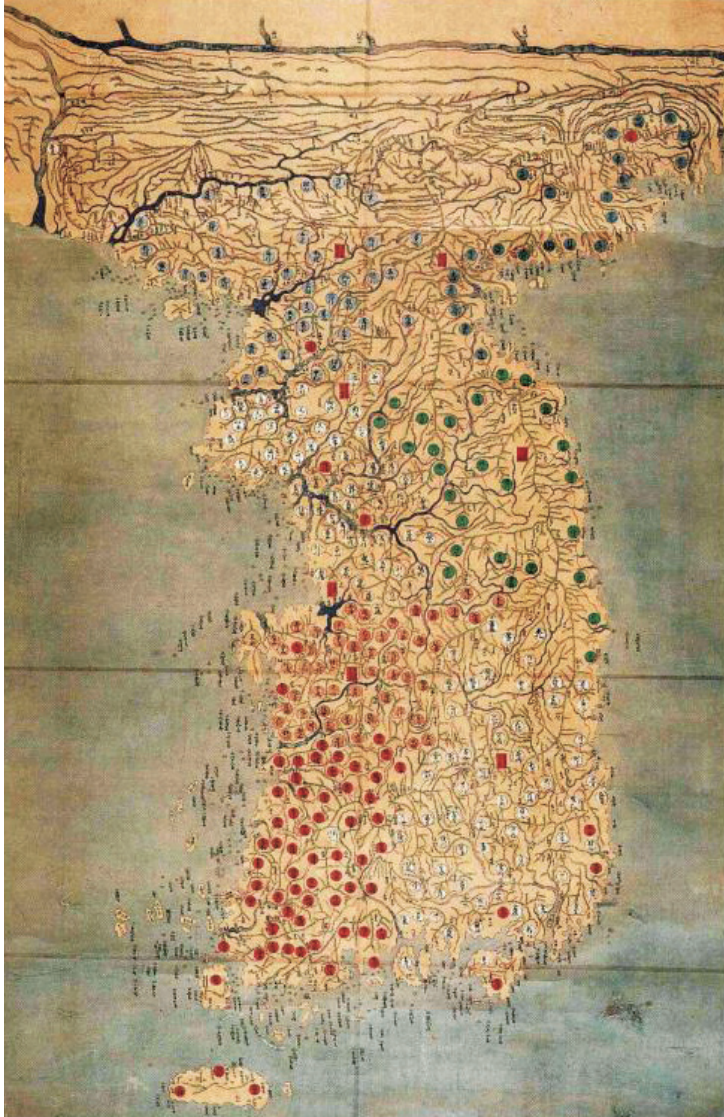
한국 고지도 속의 독도

오상학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조선 전기 지도에 표현된 독도

조선 전기에는 새로운 왕조의 개창과 국토의 확장으로 행정, 군사적으로 최신의 지도 제작이 요구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압록강 상류의 사군(四郡)과 두만강 하류의 육진(六鎭) 개척 등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척(鄭陟)은 1451년에 함경도와 평안도에 해당하는 양계(兩界) 지방의 지도를 제작하였고, 1463년(세조 9)에는 양성지(梁誠之)와 함께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완성하였다. 이 『동국지도』는 조선 전기의 측량 성과가 반영된 지도로 조정에서 여러 차례 모사되면서 행정의 기본자료로 이용되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부도(附圖)인 『동람도(東覽圖)』도 이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조선팔도지도(朝



『조선팔도지도』(16세기)

국사편찬위원회

근대적 측량기술이 없었던 전근대 시기에는 근해가 아닌 원양에 존재하는 섬들이 크기나 거리, 방위 등이 왜곡되어 표현되곤 했다. 그럼에도 동해상에 두 개의 섬,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鮮八道地圖)』는 정척, 양성지의 『동국지도』 계열 지도로 제작 시기도 원도의 것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도 울진의 동쪽 해안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동쪽에는 울릉도가, 그 서쪽에 우산도가 위치해 있다. 또한 두 섬의 크기가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서 본섬과 부속섬의 관계가 명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은 전통시대 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대적 측량기술이 없었던 전근대 시기에는 근해가 아닌 원양에 존재하는 섬들이 크기나 거리, 방위 등이 왜곡되어 표현되곤 했다. 그럼에도 동해상에 두 개의 섬,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울릉도, 독도 지역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도인 『동람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62년에 간행된 중국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체제와 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대명일통지』에는 중국전도와 13성의 지도를 부도로 삼입하고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팔도총도>와 팔도의 지도를 부도로서 수록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동람도』는 1530년 신증본에 새롭게 첨가된 것이 아니라



『동람도』의 <팔도총도>(153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전의 초고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이미 수록되었는데, 조선 초기 지도 제작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동람도』의 <팔도총도>를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울릉도, 우산도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팔도총도>에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섬들이 그려져 있는데, 서해에는 교동도, 강화도, 군산도, 흑산도, 남해에는 진도, 제주도, 남해도, 거제도, 대마도, 그리고 동해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서해와 남해의 유명한 섬들과 마찬가지로 동해상의 중요한 섬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울

릉도는 우산도보다 조금 크게 그려져 있고 우산도는 정척, 양성지의 『동국지도』 계열 지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동람도』의 도별 지도에서도 보이는데, 강원도 지도에는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팔도총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는데, 섬의 모습은 <팔도총도>에서는 남북으로 길게 그려져 있는데 비해 도별 지도에서는 동서로 길게 그려져 있다. 섬의 크기도 강원도 지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동람도』의 울릉도, 우산도의 표현은 이후에 제작되는 많은 지도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동람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민간에 널리 유포될 수 있었는데, 민간에서 제작되는 소략한 지도들은 『동람도』 계열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 후기에도 목판본이나 필사본으로 다양하게 제작되면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지도 유형으로 조선 전기 『동람도』에 표현된 울릉도, 우산도의 인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조선 후기 지도에 표현된 독도

조선후기에는 울릉도의 수토(搜討)를 통해 울릉도의 지도가 제작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어 갔지만 이런 인식이 조선의 전도에 즉각 반영되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예로 영조 연간의 『해동지도(海東地圖)』에 수록된 <대동총도(大東總圖)>를 들 수 있다. 『해동지도』에는 울릉도를 그린 개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져 있다.

<대동총도>에는 『동람도』 계열의 지도처럼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대동총도〉(18세기)의 울릉도 지역 세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려져 있다. 하지만 『동람도』 계열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 즉, 울릉도의 모습이 실제 모습에 가깝게 원형으로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다섯 개의 부속도서가 그려져 있다. 또한 성인봉을 중봉으로 표기하였고 ‘삼척(三陟)’을 기재해 넣었다. 울릉도는 원래 울진현 소속이지만 삼척영장이 울릉도의 수토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삼척’의 소속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산도에는 이전 시기 전도에서는 보기 힘든 ‘왜선창가거(倭船倉可居)’라는 주기가 보인다. 이는 울릉도 단독 지도에 표시되어 있던 것이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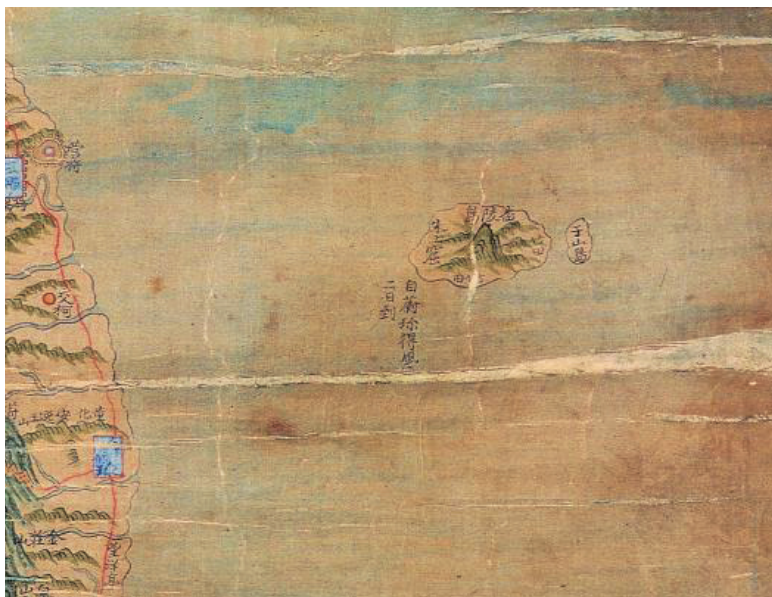
선창은 지금의 북면 천부리에 있었는데 왜선들이 정박했던 곳이다. 울릉도 지도에서는 우산도 옆에 표시되어 있어서 우산도에 있는 지명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대동충도>에서는 우산도에 왜선창이란 지명을 기재해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지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인식과 혼재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전도에도 반영되게 되는데,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정상기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지도 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18세기 중반 조선지도사의 한 획을 긋는 『동국지도』라는 뛰어난 지도를 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동국대전도』는 원도가 제작되었던 시기에 근접하는 지도이다. 현존하는 『동국대전도』 중에서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재질은 비단으로 세 폭을 이어 만들었는데, 정교하게 그려진 솜씨로 볼 때 도화서(圖畫署)의 화원(畫員)이 원본 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 시기는 지도의 내용으로 볼 때 1755년에서 1767년 사이로 추정된다.

지도를 보면 울진의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전 시기의 『동람도』 계통 지도와는 달리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표현되어 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새롭게 확립된 울릉도, 독도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동람도』 계통의 지도와는 다르게 울릉도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동쪽에 우산도가 훨씬 작게 표현되어 있다. 『동람도』처럼 울릉도와 우산도가 거의 동등한 섬이 아니라 울릉도가 주도(主島)이고 우산도는 부속섬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울릉도 내부에는 성인봉인 증봉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대나무밭인 죽



『동국대전도』(18세기 중반)의 울릉도·독도 지역 세부도

국립중앙박물관

전(竹田)과 주토굴(朱土窟)도 표시되어 있다. 주토굴은 지금의 태하리에 있는 황토굴이다. 바위 사이에서 질 좋은 황토가 나는데 수토할 때 증거품으로 다른 토산물과 함께 조정에 진상했다. 수토할 때마다 황토를 파다보니 마치 굴처럼 변해버려 주토굴이라 했던 것이다. 주토굴의 그려진 위치는 울릉도의 서북쪽으로 울릉도 전도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울릉도의 서쪽에는 ‘울진에서 바람이 맞으면 이틀만에 도착한다(自蔚珍得風二日到)’라는 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이다.

『동국지도』에서 보이는 울릉도, 우산도의 새로운 표현은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새로운 정보들이 지도나 문헌

에 수록되는 과정 속에서 가능했다. 아울러 정상기는 당시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이익(李瀾)과 절친한 사이로 오랫동안 학문적 교유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국지도』 한 부를 이익에게 주기도 했다.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동국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우산도의 새로운 인식은 이익과의 교류에서 얻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지도에 그려진 울릉도 해역을 자세히 보면 울릉도와 우산도 이외의 섬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중앙에 중봉, 서북쪽에 주토굴, 남쪽과 동쪽에 죽전 두 군데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수토 결과 제작된 울릉도 단독 지도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僊說)』에 수록된 울릉도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 같은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초야에 묻혀서 저술에 몰두하고 있던 정상기가 국가 중요 기관인 비변사에 소장된 울릉도 지도를 열람했을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설령 정상기가 이러한 울릉도 지도를 참고했다 하더라도 여기의 우산도를 울릉도 옆에 있는 지금의 죽도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울릉도의 단독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를 안용복 사건 이후 널리 알려진 송

『동국지도』에서 보이는 울릉도, 우산도의 새로운 표현은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새로운 정보들이 지도나 문헌에 수록되는 과정 속에서 가능했다.

도(松島: 지금의 독도)로 보고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 넣었다고 판단된다. 울릉도에 대한 실지탐사의 경험이 없는 정상기가 죽도를 섬두에 두고 우산도를 그렸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동국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의 인식은 이후 제작되는 많은 『동국지도』 사본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새롭게 제작되는 조선전도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는데, 조선 후기 울릉도, 독도의 주류적 인식으로 굳어져 갔다. 특히 필사본뿐만 아니라 목판본 전도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의 대표적인 지도가 『해좌전도(海左全圖)』이다. 이 지도는 1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좌’는 중국에서 봤을 때 바다 동쪽에 있는 곳으로 조선을 가리킨다.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하며 산계와 수계, 자세한 교통로 등이 동일한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보면 울릉도에는 중봉이 산의 형태로 그려져 있다. 그 옆에 부속도서 형태로 우산도를 작게 그리고 산봉우리 모습도 그려 넣었다. 울진에서 이어지는 해로의 모습도 보인다. 무엇보다 그 옆의 여백에 울릉도의 연혁과 지리에 관한 간단한 글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이다.

『동국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의 인식은 이후 제작되는 많은 『동국지도』 사본들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새롭게 제작되는 조선전도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는데, 조선 후기 울릉도, 독도의 주류적 인식으로 굳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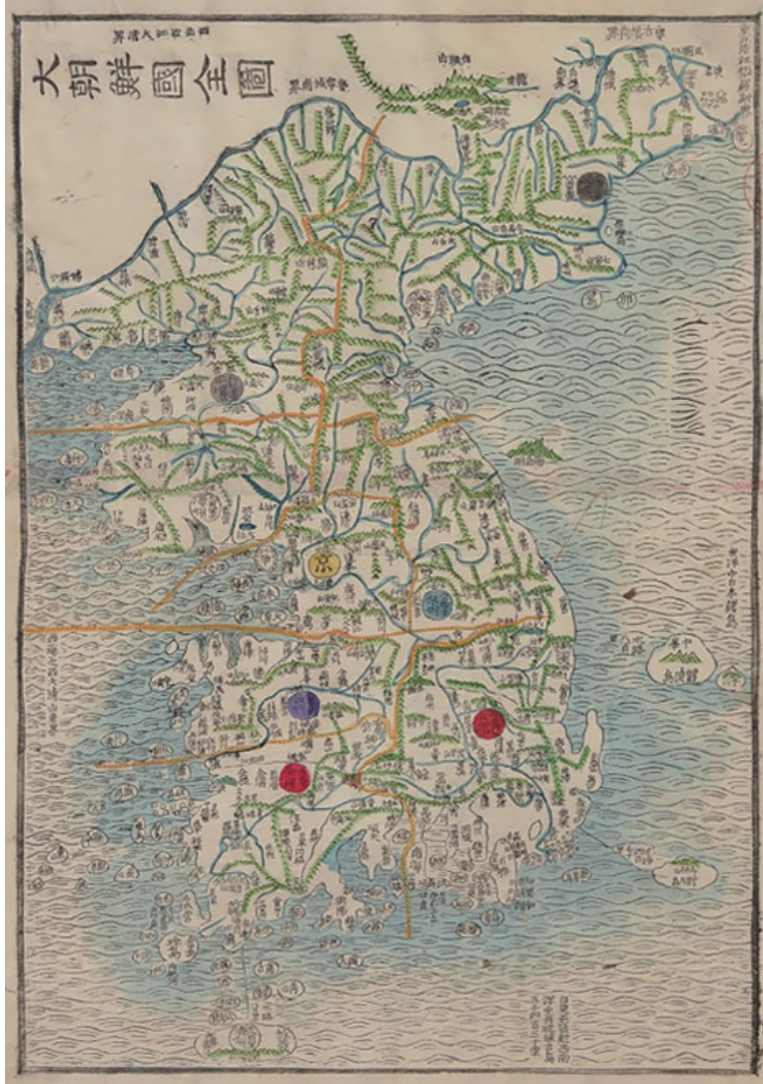
『해좌전도』(19세기 중반)

서울역사박물관

『해좌전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독도의 인식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판본 『접역지도(鰈域地圖)』에 수록된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를 들 수 있다. 이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 등은 『해좌전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우산도의 표현도 『해좌전도』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여기에는 울릉도까지의 항로가 그려져 있지 않은 대신 ‘수로팔백리(水路八百里)’라 표시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350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350리는 울릉도까지의 직선거리로 보이는데 실제로 오늘날 죽변에서 울릉도까지가 140km인 것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하다. 수로 800리는 실제 항로상의 거리로 과거 전통시대에는 조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직로 항해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산도(독도)의 위쪽에는 ‘동양중일본제도(東洋中日本諸島)’라는 주기가 있는데 독도의 동쪽으로 가면 일본의 섬들과 만날 수 있다는 울릉도, 독도 주변 지역의 지리 인식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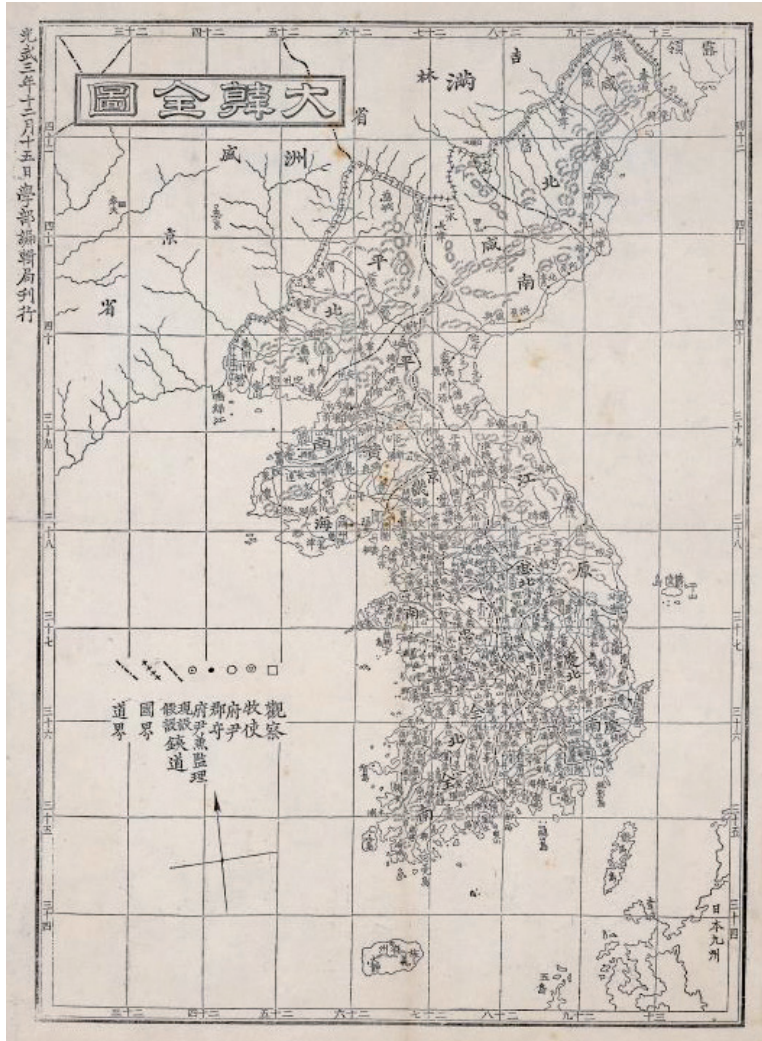
대한제국기에 이르러서도 울릉도, 독도의 주류적 인식은 지속되는데, <대한전도(大韓全圖)>와 같은 전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한전도>는 1899년 현채(玄采)가 간행한 『대한지지(大韓地誌)』에 수록된 우리나라 전도로 동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원래 학부편집국에서 제작한 지도로 1896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개편된 13도의 도별 지도와 전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도 제작기법과 서양의 근대적 지도 제작기법이 혼재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지도다.

여기에 그려진 울릉도와 독도는 이전 시기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산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동쪽에 그려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울릉도의 남쪽에 네 개 정도의 섬이 더 그려져



〈대조선국전도〉(19세기 후반)

프랑스국립도서관



<대한전도>(1899)

서울역사박물관

있는 것이다. 이는 울릉도의 수토 결과로 그린 울릉도 단독 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울릉도, 독도 지역에 대한 탐사로 얻어진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이전 시기의 지도를 기초로 그려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고지도에 표현된 독도는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동람도』에 표현된 것처럼 방위, 위치, 면적 등에서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인 우산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독도 인식의 새로운 변화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안용복 사건으로 제고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부속섬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울릉도, 독도의 주류적 인식으로 자리 잡으며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오상학(吳尙學, Oh Sanghak)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세계지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와 지리의 융합적 연구라 할 수 있는 역사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동아시아의 고지도, 풍수사상의 역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외교부 독도정책자문위원,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회장, 제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일본 고지도 속의 독도

심정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 일본 고지도의 증거력

지도는 제작 시대와 방법에 따라 고지도와 현대지도로 나뉜다. 고지도는 현대적 측량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지역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재판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권원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 이들 가운데 고지도는 비록 정확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지만, 영역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증거자료로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지도는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성격이나 제작 목적, 제작자, 제작 시기, 기능, 가치 등의 변수에 따라 증거력이 달라진다. 특히 간행 주체에 따른 관찬 지도와 사찬 지도가 그러하다. 관찬 지도는 해당 국가의 입장이 지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찬 지도보다는 공식성, 정확성, 객관성이 높다는 특성을 갖춘 편이다. 그중에서도 국가기관의 공문에 첨부된 지도는 증거력이 탁월하다. 그렇다고 사찬 지도가 증거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이 제작한 지도는 관찬에 비해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의 허가나 입장 반영, 제작자의 명성에 따라 증거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자국의 영토에서 누락시킨 것보다 타국의 영토로 표시한 것이 더 높은 증거력을 갖는다. 한국의 고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한 것이 없지만,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를 일본과 무관하게 또는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것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에도(江戸)시대 독도의 등장

일반적으로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자국의 영토에서 누락시킨 것보다 타국의 영토로 표시한 것이 더 높은 증거력을 갖는다.

일본의 역사에서 무사정권이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에도시대(1603~1868)는 쇄국정책을 유지했지만, 예외적으로 일본은 이웃나라 조선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와는 교류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서양의 지도가 일본에 도입되고, 반대로 일본의 지도가 유럽 사회에 전해지면서 동

해상의 작은 섬 독도는 점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 사찬 지도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혼슈(本州) 남서부에 위치한 산인(山陰) 지방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6세기 말경 울릉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인삼을 비롯한 각종 임산물을 채취하여 일본 사회에 유통하기도 했다. 17세기 전반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울릉도에 건너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돗토리번(鳥取藩)의 요나고(米子)에 거주하는 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의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625년부터 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은 번갈아가며 매년 울릉도에서 전복, 해삼, 버섯, 목재, 바다사자 등 여러 토산물을 획득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 그들은 울릉도 항해의 중간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일본에서 독도가 나타나는 최초의 지도는 요나고시립산인역사관에 소장된 <송도회도(松嶋繪圖)>이다. 제작 연대는 두 집안이 독도와 울릉도를 왕래하기 시작한 이후인 1650년대 전후로 추정된다. 지도에는 독도의 모양과 둘레, 오키에서 독도, 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 관계 등이 기재되었다.

고문헌에 독도는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隱州視聽合記)』에 최초로 나타난다. 이 책의 본문에는 오키의 위치와 관련하여 독도와 울릉도를 언급했으며, 일본 북서의 경계는 오키까지라고 명시되었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는 1760년대 일본전도 수준에서 최초로 독도와 울릉도를 나타내었다. 1768년의 <개제 부상분리도(改製扶桑分里圖)>에는 두 섬 옆에 『은주시청합기』에 기술된

포커스 II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1791)의 독도(松島)

동북아역사재단



『삼국통람도설』, 〈삼국점양지도〉(1785)의 독도

〈개정 일본여지
로정전도〉는
일본열도의 윤곽이
실제와 같이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북서
변경에는 일본의
영역 바깥이라는
의미로 조선
동남부의 부산,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 부분에
경위선을 표시하지
않았다.

1 여기(울릉도)에서 고려(조선)이 보이는 것은 운주(시마네현)에서 은주(오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2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¹라는 글귀를 표시하였다.

그는 일본전도 제작에 전념하여 1779년에는 더욱 발전된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일본열도의 윤곽이 실제와 같이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북서 변경에는 일본의 영역 바깥이라는 의미로 조선 동남부의 부산,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 부분에 경위선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지도는 당시 최고의 역작이었기에 1801년 그가 별세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어 19세기 일반 민중의 지리적 지식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에도시대의 사찬 지도 가운데, 독도와 관련하여 제외할 수 없는 인물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이다. 그는 경세가, 난학자, 지리학자로서 네덜란드 학문인 난학(蘭學)을 접하면서 세계의 지리와 정치 사정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최고 업적은 1785년에 완성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이라는 경세서, 지리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다섯 장의 부도 가운데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²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나타나며, 섬 옆에는 “조선의 것(朝鮮ノ持也)”이라는 글귀가 기재되었다. 이 지도는 독일의 동양학자 클라프로트(Julius Heinrich von Klaproth)

가 입수하여 1832년에 프랑스어로 번역 간행했다.

(2) 관찬 지도

18세기 말까지 관찬 일본도(日本圖)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왔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좀처럼 표시되지 않았다. 19세기에 들어와 일본 정부는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1807년에 천문방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에게 세계지도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는 최신의 동양과 서양의 자료를 활용하여 1809년에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를, 1810년에 <신정 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를 완성했다.

<일본변계약도>는 독도와 울릉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관찬 지도이다. 제작자는 조선의 자료를 참고하여 지도에 두 섬을 동해상의 원산만에 표시했다. 그러나 섬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명칭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도(于山島)의 ‘우(于)’는 ‘천(千)’으로, 울릉도(鬱陵島)의 ‘울(鬱)’은 ‘울(菴)’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19세기 초에는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초로 국토 전역을 20년 동안 실측하여 여러 지도를 만들었다. 1818년 별세한 뒤에 제자들은 그의 지도를 바탕으로 1821년에 대형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완성했다. 이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측량대가 두 섬을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아 지도 측량작업을 오키제도까지 실시했기 때문이다.

185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일본과 통상을 요구하여 1854년에 미일화친조약, 1855년에 러일화친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우물 안의 쇠국에서 개국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최신의 세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지도 편찬사업을 추진했다. 1810년의



〈일본변계약도〉(1809)의 독도(千山島)

〈신정 만국전도〉는 만든 지 40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도의 개정작업을 천문방 야마지 유키타카(山路譜孝)가 책임지도록 명령했다.

그는 서양의 여러 최신 지도를 참조하여 1855년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중정 만국전도(重訂萬國全圖)〉를 완성했는데, 지도의 크기나 형식은 이전에 완성된 〈신정 만국전도〉를 따랐다. 〈중정 만국전도〉에는 관찬 세계지도 수준에서 최초로 독도와 울릉도가 등장한다. 강원도 동쪽 바다에 섬의 모양과 함께 “아르고노트섬 즉 울릉도(アルゴナウト島即竹島)”, 그 남동쪽에 “다즐레섬 즉 독도(タゲレット島即松島)”라는 지명이 표시되었다.

일본 지도에 아르고노트섬과 다즐레섬이 등장하는 것은 제작과정에서 서양의 지도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라페루즈(Jean Francois



〈중정 만국전도〉(1855)의 독도(松島)

La Pérouse) 일행이 동해를 탐사한 이후 1797년 프랑스 혁명정부가 간행한 항해지도에는 울릉도가 ‘다즐레섬(I. Dagelet)’으로 기재되었다. 영국의 콜넷(James Colnett)은 1791년 동해를 탐사하면서 거대한 바위섬을 발견하고 이 섬이 울릉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항해도상에 표시했으며, 이 내용은 지도 제작자였던 애로스미스(Aaron Arrowsmith)가 1811년 일본쿠릴열도지도(Map of Island of Japan, Kurile &c.)에 울릉도와 함께 그 북서에 아르고노트(Argonaut I.)라는 가상의 섬을 하나 더 표시했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독일인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는 귀국 이후 1840년에 완성한 일본전도에서 아르고노트, 울릉도, 독도의 위치와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유럽사회에서 혼동을 가중시켰다.

1840년 이래 잘못된 지리적 정보를 담은 서양 지도가 일본에도 전해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관찬 및 사찬 지도에 두 섬의 위치와 명칭 표시에 혼란이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1855년의 〈중정 만국전도〉에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가 울릉도(竹島)로, 서양에서 울릉도를 가리키는 다즐레섬이 독도(松島)로 비정된 것이다. 올바른 지도라면 실존하지 않는 아르고노트섬은 삭제되고, 다즐레섬은 울릉도로 나타나고, 그 동남쪽에 독도가 새롭게 표시되어야 한다.

서양인들의 동해 해역 탐사와 일본 방문으로 19세기 전반과 후반에 제작된 서양 지도에는 독도의 서양식 명칭으로 리앙쿠르 바위섬, 올리부차와 메넬라이 등이 사용되었다. 나아가 이들 지도는 네덜란드와의 교류로 일본에도 도입되어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지도에 서양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3. 메이지(明治)시대 독도의 재확인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무사정권이 붕괴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했다. 메이지 정부는 초기에 지적편찬사업을 전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과 관련이 없음을 재확인했지만, 후기로 가면서 그들은 제국주의 야욕으로 독도에 대한 인식이 변질되었다.

(1) 관찬 지도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1696년에 제1차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19세기 전반에는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 일행이 몰래 울릉도에서 삼림을 벌채했던 행적이 정부에 발각되어 관련자

가 사형 및 처벌 받고, 1837년에는 제2차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근대에 들어와 일본 정부는 재차 두 섬의 소속을 면밀히 조사했다. 먼저 1870년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정탐하고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보고하였다. 1877년에는 메이지 정부의 국가최고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지령을 통해 ‘울릉도 외 1도’가 일본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태정관 지령」에 별도의 자료로 첨부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는 조선과 일본 오키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의 형상, 지명, 위치, 거리 관계 등이 중점적으로 표현되었다. 지도에는 울릉도(磯竹島) 동남쪽의 동과 서에 나란히 두 개의 주요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이 그려져 있다. 두 개의 주요 섬에는 동쪽의 섬에 ‘松’, 서쪽의 섬에 ‘島’라는 글자가 표기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인 마쓰시마(松島)이다. 이 지도는 국가의 공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공식성과 객관성이 높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서 직접적, 일차적 증명력을 지닌다.

그 결과 내무성, 육군참모국, 해군수로부 등 메이지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간행된 오키전도, 일

<기죽도약도>는 국가의 공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공식성과 객관성이 높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서 직접적, 일차적 증명력을 지닌다.

본전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거나 조선전도에 두 섬이 조선의 소속이라는 의미로 표시되었다.

예컨대 내무성이 편찬한 1881년의 대일본국전도에는 치시마(千島)제도를 비롯하여 류큐,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등 일본 변방의 섬들이 일본의 영토로서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생략된 것은 1821년 이노 다다타카의 관찬 <대일본연해여지전도>를 계승하였기 때문이며 메이지 초기 정부의 영역 재확인과의 관련이 있다. 1894년 지도 제작자 무네사다 하나노신(宗貞華之進)이 내무성에 납본한 <신조 조선약지도(新彫朝鮮略地圖)>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와 동일하게 연한 초록색으로 채색되어 두 섬이 강원도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와 대일본전도에도 두 섬의 소속은 내무성의 지도와 유사한 입장이다. 1874년의 조선전도에는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가 표시되어 있지만,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정확하지 않다. 섬의 혼란이 반영된 서구의 지도를 참조했기 때문에 아르고노트 자리에 울릉도를, 울릉도 위치에 독도를 표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반면 1877년 대일본전도, 1889년의 오키전도에는 내무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도와 울릉도가 제외되었다.

한편 1876년 해군수로부의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최초로 두개의 작은 섬으로 묘사되었다. 이 지도는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를 일본어로 번역 간행한 것인데, 일본어로 독도의 서도가 “오리우츠(オリウツ)”, 동도가 “메네라이(メネライ)”로 표기되었다. 1880년대부터는 여러 종류의 해도가 제작되어 독도와 울릉도의 형상과 크기, 위치 등이 비교적 정확하며, 지명은 울릉도를 “鬱陵島(松島)”로, 그 동남에 독도는 “리앙쿠르암(リアンコルト岩)”

으로 표기되었다. 해도에는 바다 관련 지리적 정보를 증점적으로 표시했지만, 국경선이 없어 섬의 소속은 파악할 수 없다. 두 섬의 소속 관련 내용은 해군수로부가 편찬한 각종 수로지에 나타난다.

(2) 사찬 지도

메이지시대에 민간 지도제작자들은 독도와 울릉도를 에도시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색하여 영역을 구분했다. 나아가 더 명료한 방식으로 독도와 오키 사이에 국경선을 표시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서 1876년 후사오 겐(總生寬)의 『조선신론(朝鮮新論)』에 수록된 <측량 조선여지전도(測量朝鮮輿地全圖)>에 조선은 전체를 연한 갈색으로, 일본 규슈의 일부와 쓰시마는 적색으로 채색되었다. 동해의 울릉도(竹嶋)와 독도(松嶋)는 한반도와 동일한 색이지만,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일본 정부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지리서와 지도 편찬에 일차적으로 반영되었고, 이는 다시 근대 일본의 지리 교과용도서에 수용되었다. 일본에서 독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지리 교과용도서는 1872년의 『일본지리왕래(日本地

<대일본부현약도>에는 오키제도의 북서 바다에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조선의 동남부 부산 일대가 일본의 영역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일본 본토와 달리 아무런 채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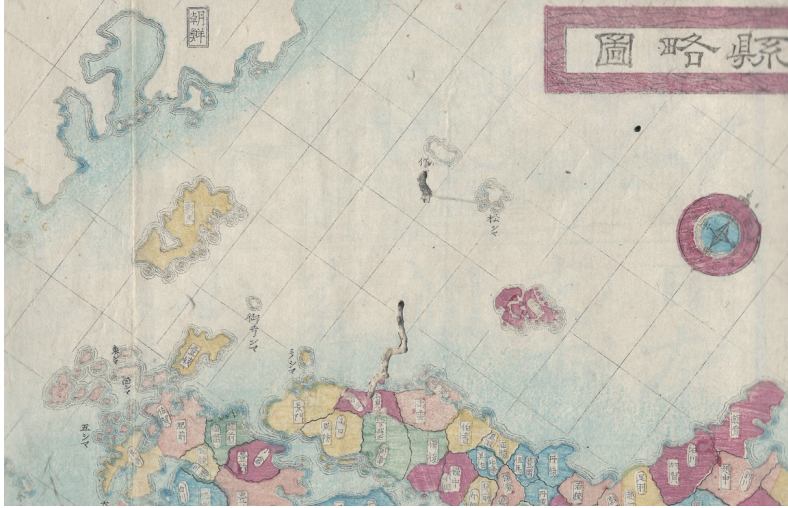
〈측량 조선여지전도〉(1876)의 독도(松嶋)

독도재단

理往來』에 수록된 <대일본부현약도(大日本府縣略圖)>이다. 이 지도에는 오키제도의 북서 바다에 울릉도(竹シマ)와 독도(松シマ), 그리고 조선의 동남부 부산 일대가 일본의 영역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일본 본토와 달리 아무런 채색이 없다.

메이지 후기에는 군사지도에 국경선을 표시하여 독도의 소속을 더 명확히 구분하기도 했다. 1895년 요시쿠라 세이지로(吉倉清次郎)의 <실측 일청한군용정도(實測日清韓軍用精圖)>에 한국은 중국 및 일본의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황색으로 채색했다. 동해의 독도(松島)와 오키제도 사이에는 국경선까지 표시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도록 했다.

포커스 II



〈대일본부현약도〉(1872)의 독도(松シマ)



〈실측 일정한군용정도〉(1895)의 독도(松島)

호야지리박물관

4. 일본 고지도의 독도 쟁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본의 관찬 및 사찬 지도는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해 그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찬 지도로서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경위선 바깥에 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경위선이 두 섬까지 표시된 1846년판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를 제시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도는 작자가 별세한 뒤에 수정한 지도로서 가치가 훼손된 것이다. 또 다른 저명한 사찬 지도로서 1785년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가 있다. 일본은 이 지도에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그것이 독도임을 뒷받침하는 1802년 나카고미 쇼에몬(中込莊右衛門)의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가 발견되었다.

에도시대의 관찬 지도와 사찬 지도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사찬 지도에 먼저 등장하지만, 두 섬의 위치나 거리 관계 등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메이지시대에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다고 최종 결정한 1877년 「태정관 지령」과 여기에 첨부된 <기죽도약도>는 공식성, 정확성, 객관성이 인정된다. 이 지도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에게 치명적 약점이 되는 가장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자료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 지도를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관찬 및 사찬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두 섬이 조선의 영토 또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표시된 것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메이지 후기로 갈수록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을

포커스 II

드러냈으며, 결국 1905년 독도를 침탈했다. 그럼에도 일본 식민지시대까지 일본의 관찬 및 사찬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것이 존재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이후에도 이 섬은 한동안 일본인들의 마음에 한국의 영토로 살아 있었던 것이다.



심정보(沈正輔, Shim, Jeongbo)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년간 동해와 일본해 지명의 역사를 연구하여 국문, 일문, 영문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근·현대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 가르쳐 왔으며, 동·서양의 고지도에 독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에 주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 속의 독도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고지도에는 우리 땅 독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독도가 나타난 서양 고지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은 서양인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조선에서 입수한 지도 및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지도이다. 이 유형의 지도는 주로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작성된 것들이다. 두 번째 유형의 지도는 서양의 배들이 동해상으로 직접 와서 항해하던 중 독도를 ‘발견’하고 난 후 독도를 그려 넣은 해도들이다. 이 유형의 지도들은 프랑스 포경선이 독도를 ‘발견’한 1849년 이후에 나타났으며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지에서 작성된 해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기재 양상을 중요 고지도들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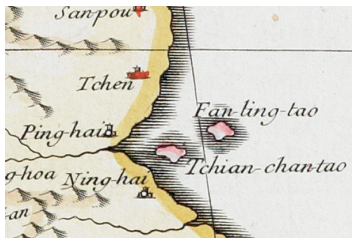
2. 동아시아의 지도를 모사한 서양 고지도 속 독도

(1) 당빌의 <조선왕국도> 속 독도

17세기 이래 서양에서는 중국에서 입수한 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아시아 지도들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18세기에는 중국에 파견되었던 예수회 선교사인 마르티니(Martino Martini)가 중국에서 입수한 지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신중국아틀라스(Novus Atlas Sinensis)』(1655)가 있다. 이 지도집에는 중국이 주로 묘사되었고, 한반도는 8도만이 기재되었으며, 독도는 기재되지 않았다.

당빌의 <조선왕국도>는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 가운데 조선만을 단독으로 그린 최초의 지도이며 한반도의 해안선과 하천 및 군현의 지명 등 지리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독도가 기재된 서양의 첫 번째 지도는 뒤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 신부가 작성한 『중국지(中國志,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1735)에 실린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이다. 이 지도는 프랑스의 지리학자 겸 지도제작자인 당빌(Jean d'Anville)이 제작하였는데, 그는 1737년에 네덜



당빌의 <조선왕국도>(1735)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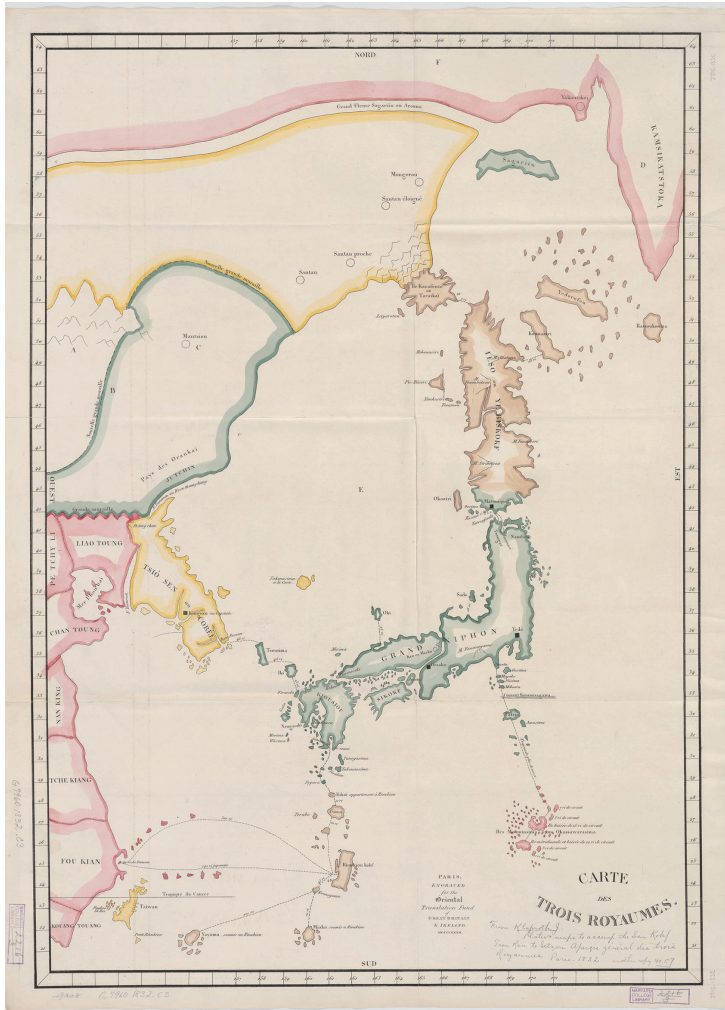
란드에서 『중국지』에 실린 지도만 모아 『신중국지도첩(Nouvel Atlas de la Chine)』을 작성하였다.

당빌의 <조선왕국도>는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 가운데 조선만을 단독으로 그린 최초의 지도이며 한반도의 해안선과 하천 및 군현의 지명 등 지리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청나라의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때문에 지명이 중국식 발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독도인 우산도는 찬찬타오(Tchian-chantao)로, 울릉도가 판링타오(Fan-ling-tao)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황여전람도> 작성 당시 사용된 조선 지도의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울릉도(鬱陵島)를 범릉도(範陵島)로 인식하고, 이를 중국식 발음을 따라 로마자로 기재한 결과이다. 『중국지』와 『신중국지도첩』은 이후 유럽에서 작성된 중국 및 조선 지도의 표준이 되었고, 이 결과 <황여전람도>에 기록된 내용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서구에서 작성된 조선의 지도에서 찬찬타오와 판링타오 표기는 19세기 중반까지 나타났으며, 러시아가 실측하여 작성한 해도인 <조선동해안도(Карта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가 1857년에 발간된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2) 클라프로트의 <삼국총도> 속 독도

독일의 언어학자 겸 동양학 학자인 클라프로트(Julius Heinrich von Klaproth, 1783~1835)는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작성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삽입된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를 1832년에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삼국총도(Carte des Trois Royaumes)>를 작성하였다. 『삼국통람도설』은 하야시 시헤이가 일본의 주변 3국인 조선, 에조(홋카이도), 류큐(오키나와) 및 치시마열도(쿠릴열도)의 가라후토(樺太:

포커스 II



클라프르트의 <삼국총도>(1832) 속 울릉도와 독도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사할린), 에토로후섬(挾捩島), 우루프섬(得撫島) 등의 풍속에 대해 삽화를 곁들여 해설한 책이며,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류큐전도>, <무인도도>, <조선국전도>, <에조국전도> 등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동양학 학자 클라프로트는 1832년에 이 책자 및 부속지도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였으며, 유럽인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각주와 주해를 달아 발간하였다.

<삼국총도>에는 동해 한가운데에 큰 섬과 작은 섬을 그려 넣고, 큰 섬의 왼쪽에 ‘타케노시마는 조선의 것(Takenosima a la Coree)’이라 써 넣었다. 아울러 이 두 섬은 조선에 칠해진 색과 동일한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Takenosima’라 쓰인 큰 섬은 울릉도이고, 그 옆의 작은 섬은 독도인데,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를 수정·보완한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1802)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클라프로트가 제작한 <삼국총도>에 독도는 명확히 조선의 영토로 기재되었다.

<삼국총도>에는 동해 한가운데에 큰 섬과 작은 섬을 그려 넣고, 큰 섬의 왼쪽에 ‘타케노시마는 조선의 것(Takenosima à la Corée)’이라 써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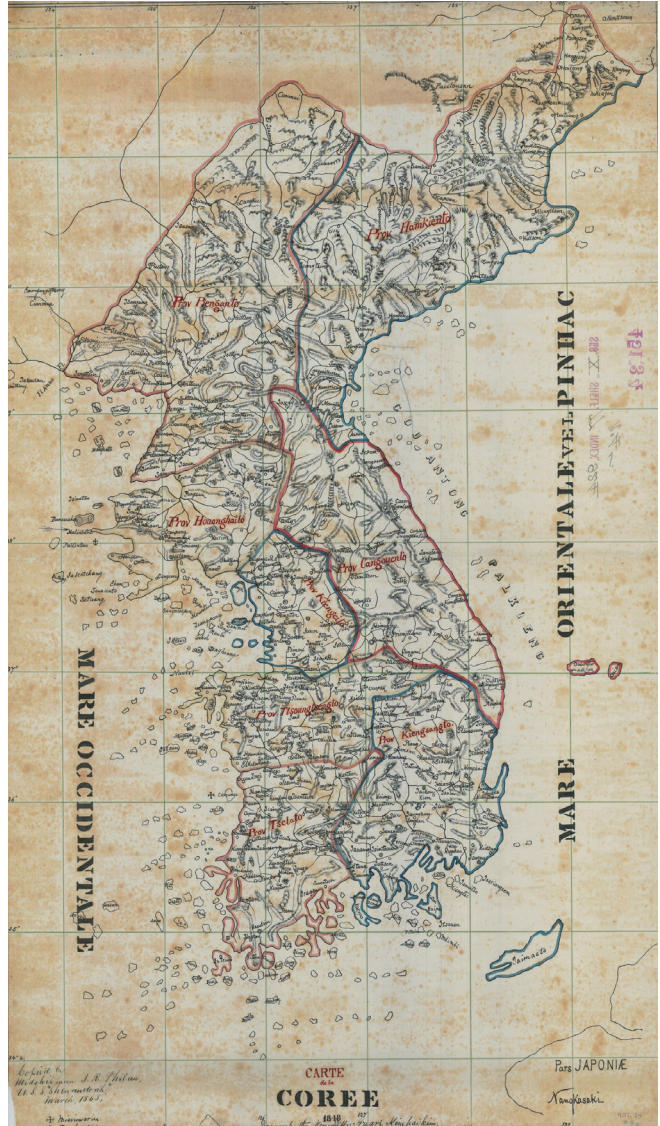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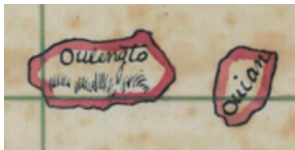
(3) 펠란의 <조선전도> 속 독도

1876년 강화도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 서양인들은 한반도에 대한 출입국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1870년대까지 서구 국가들

은 조선에 대한 지리정보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로마교황청이 1831년부터 조선 교구를 담당하게 한 파리의방전교회(外邦傳教會,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는 프랑스 출신 가톨릭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내 선교활동을 펼쳤고, 이로 인해 당시 조선에서 직접 구한 지리정보를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조선인 최초 가톨릭 신부인 김대건은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신부였는데, 그는 마카오에 지부를 두었던 파리의방전교회로 조선 관련 정보를 선교 목적으로 전달하였다. 김대건 신부가 전달한 여러 물품 가운데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라는 지도가 있었는데, 이 지도는 이후 파리의방전교회뿐만 아니라 프랑스 외교관 및 해군에도 전달되어 활용되었다.

1866년 7월 평양에서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생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의 탐문 항행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탐문 항행은 슈펠트(Robert Shufeldt, 1822~1895) 함장이 이끈 와추세츠호(U.S.S. Wachusett)가 1867년 1월 21일에서 2월 3일까지 황해도 장연 일대를 조사한 것이고, 두 번째 탐문 항행은 페비거(John Febiger, 1821~1898) 함장이 이끈 셰넌도어호(U.S.S. Shenandoah)가 1868년 4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대동강 일대에 머문 항행이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된 관련 지도들에 부기된 정보에 따르면 와추세츠호의 경우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프랑스 관리들이 제작한 <조선팔도지도(Carte de la Corée divisée en huit Provinces)>를, 셰넌도어호의 경우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를 이용하여 조선의 해안에 접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셰넌도어호가 탐문 항행을 위해 준비한 <조선전도>는 당시 그 배에 승선했던 초급장교였던 펠란(J.R. Phelan, 1846~1870)이 작성한 것이었다. 이



펠란의 <조선전도>(1868) 속 울릉도와 독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지도상에는 가경자(可敬者) 김대건 신부(the Venerable Andre Kimhai Kim)가 그린 지도를 펠란(J.R. Phelan)이 모사하여 작성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조선전도>는 1845년에 그에 의해 직접 작성된 지도와 사후인 1848년에 작성된 지도가 있으며, 펠란의 것은 1848년에 작성된 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을 모사한 지도이며, 그 까닭에 압록강과 두만강 유로 및 한반도의 전체적인 모습이 실제와 유사하다. 비록 지도 자체는 간략한 지도인 까닭에 항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당시 프랑스나 미국 등 서구 제국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자세한 조선지도였기에 미국 해군에서도 이 지도를 모사하여 항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펠란이 모사한 지도에는 동해상에 동해(MARE ORIENTALE) 표기가 되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졌고 명칭은 각각 ‘Oulengto’와 ‘Ouian’이라 표기되었다. 독도는 ‘Ouian’이라 오기되었는데, 이는 필기체로 썼을 때 s(ś)와 i(i)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

3. 서구 열강이 실측하여 작성한 해도 속 독도

(1) 프랑스 해군 제작 <태평양해도>

서양의 탐험선들이 동해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라페루즈(Jean Francois La pérouse, 1741~1788)의 항해부터이다. 1787년 5월 동해상으로 진출한 라페루즈 함대는 울릉도를 발견하여 다즐레(Dagelet) 섬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영국 상선 아르고노트호의 콜넷(James Colnett, 1753~1806)이 1791년, 브로튼(William Broughton, 1762~1821) 함장이

포커스 II



〈태평양해도〉(1851)에 최초로 기재된 독도(Rr. du Liancourt)

프랑스국립도서관

1797년에 한반도 동해안을 항해하였고, 러시아의 크루젠스텐(Adam Krusenstern, 1770~1846)은 태평양 항해의 일환으로 1805년에 동해상을 항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항해에서 독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독도는 1849년 1월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등 서양의 포경선은 북태평양에서 고래잡이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포경선이었던 리앙쿠르호는 동해상에서 독도를 발견하였고, 프랑스로 귀국한 직후 당국에 독도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프랑스의 법령에 따르면 민간 선박도 항해 중 새롭게 발견한 섬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를 해야 했다. 리앙쿠르호 선장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리앙쿠르호는 동해상에서 기록에 존재하지 않은 바위섬을 발견하였는데 위치는 북위 37도 2분, 동경 129도 26분이었다. 이 내용은 1851년에 프랑

스 수로국이 발간하는 『수로지(Annales Hydrographiques)』에 기재되었으며, 1851년판 <태평양해도(Carte générale de l'Océan Pacifique)>에도 반영되어 리앙쿠르암이란 의미의 프랑스어인 'Rr. du Liancourt'로 표기되었다.

(2) 러시아 해군의 <조선동해안도> 속 독도

1852년부터 1854년 러시아의 푸차친(Yevfimiy Putyatin, 1803~1883) 제독은 중국과 일본의 개항을 타진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하였다. 그의 함대는 전함 팔라다호, 함정 올리부차호, 범선 보스토크호, 수송선 멘시코프호로 구성되었다. 1852년 10월 푸차친의 함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하여 이듬해 6월 중국에 도착하여 통상을 요구하였고, 그해 8월에는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통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서 통상을 거절당하였다.

한편 1853년 10월 크림전쟁이 발발하자 푸차친 제독의 함대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1854년 2월 마닐라로 이동하였다가 그해 3월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이던 1854년 4월 2일 그의 함대는 거문도를 측량하였고,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부산에서부터 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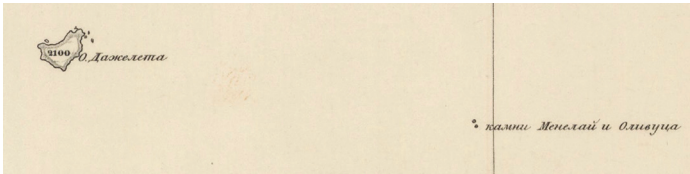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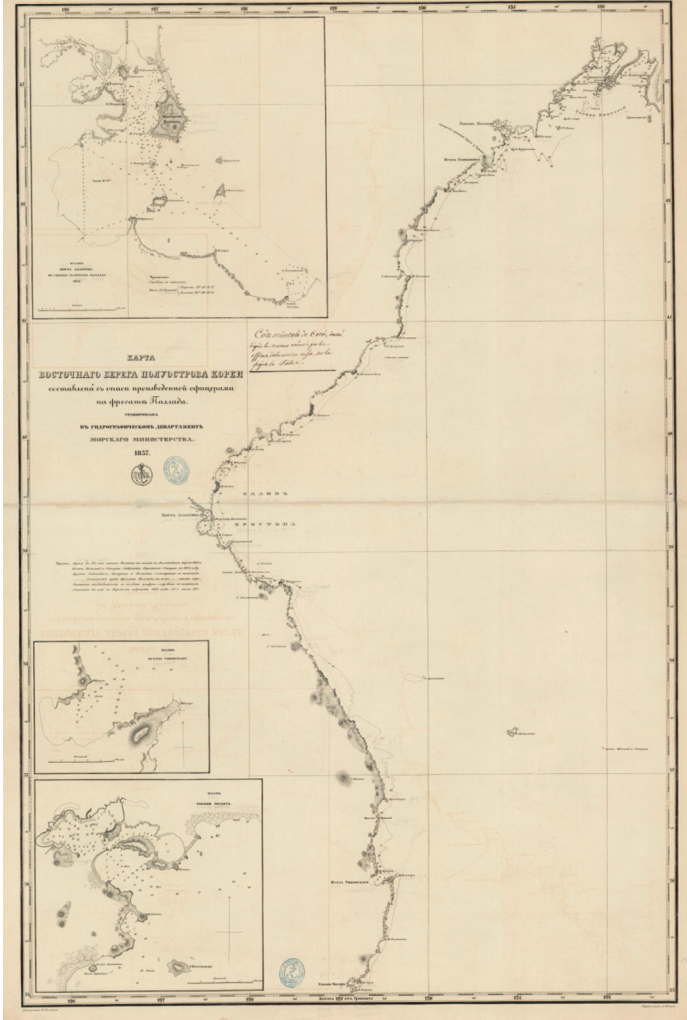
독도는 1849년 1월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의해
'발견'되었다. ...
이 내용은 1851년에
프랑스 수로국이
발간하는 『수로지』에
기재되었으며, 1851년판
<태평양해도>에도
반영되어 리앙쿠르암이란
의미의 프랑스어인
'Rr. du Liancourt'로
표기되었다.

강 하구까지의 조선 동해안을 실측하였다. 같은 시기 동안 올리부차호는 대한해협을 지나 타타르해협으로 향하던 중 1854년 4월 18일에 독도를 발견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푸차친은 팔라다호의 세르게예프 중령을 독도에 파견하여 섬의 모습을 스케치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올리부차호의 항해일지에 독도의 위치, 높이, 형태 등이 기재되었고, 독도의 서도를 올리부차로, 동도를 메넬라이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 내용과 올리부차호의 독도 측량 내용은 1855년 1월호 러시아 『해군지(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에 소개되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 수로국은 1857년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하였다.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 내용과 올리부차호의 독도 측량 내용은 1855년 1월호 러시아 『해군지』에 소개되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 수로국은 1857년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하였다.

이러한 푸차친 제독 함대의 조사 결과가 반영된 <조선동해안도>에 기재된 독도는 기존 지도들에 표기된 독도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동쪽의 해안선이 새로 그려지면서 서양 고지도에서 줄곧 기재되어온 ‘찬찬타오’와 ‘판링타오’가 사라졌다. 둘째, 독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 Menelai)’와 ‘올리부차(Оливуца, Olivutsa)’ 두 개의 섬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1862년판 <조선동해안도>에는 독도의 단면이

포커스 II



러시아 해군 수로국의
〈조선동해안도〉(1857)

프랑스국립도서관

추가되었다. 이러한 러시아 해군의 <조선동해안도> 발행은 러시아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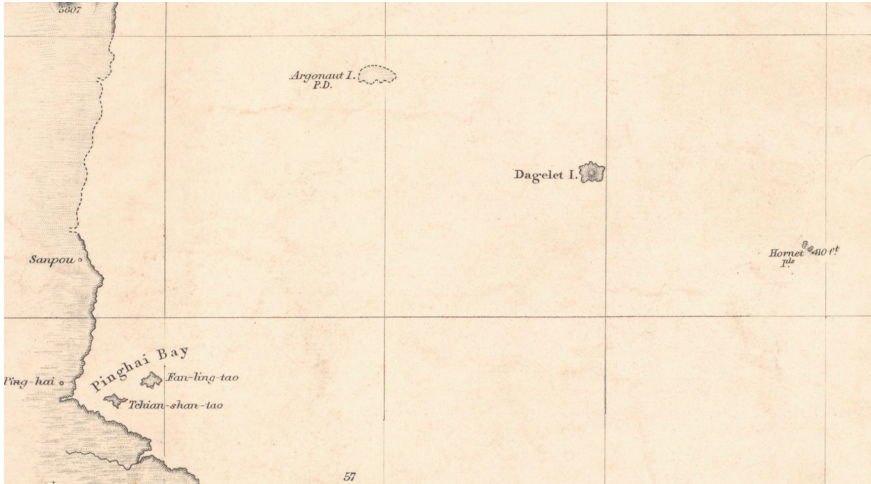
(3) <영국해도> 2347번인 <일본해도>에 기재된 독도

크림전쟁(1853~1856)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인 1855년 4월, 영국 해군 호넷호(HMS Hornet)는 시빌호(HMS Syville), 비턴호(HMS Bittern)와 함께 러시아 해군을 추격하기 위해 홍콩에서 일본의 하코다테로 향하던 도중 동해상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호넷호의 선장 포사이스(Charles Forsyth)는 이 내용을 본국에 보고했고, 그 내용은 1855년 11월에 영국에서 발간된 『해양잡지(Nautical Magazine)』에 「일본해에 있는 섬들(Islands in the Sea of Japan)」이라는 제목의 글로 소개되었다. 이 글에 따르면 세 함정은 모두 독도의 경위도를 측정하였고, 세 함정이 측정한 평균 좌표치는 북위 37도 15분 3초, 동경 131도 55분 8초였다.

1855년 4월,
영국 해군 호넷호는
시빌호, 비턴호와
함께 러시아 해군을
추격하기 위해
홍콩에서 일본의
하코다테로 향하던
도중 동해상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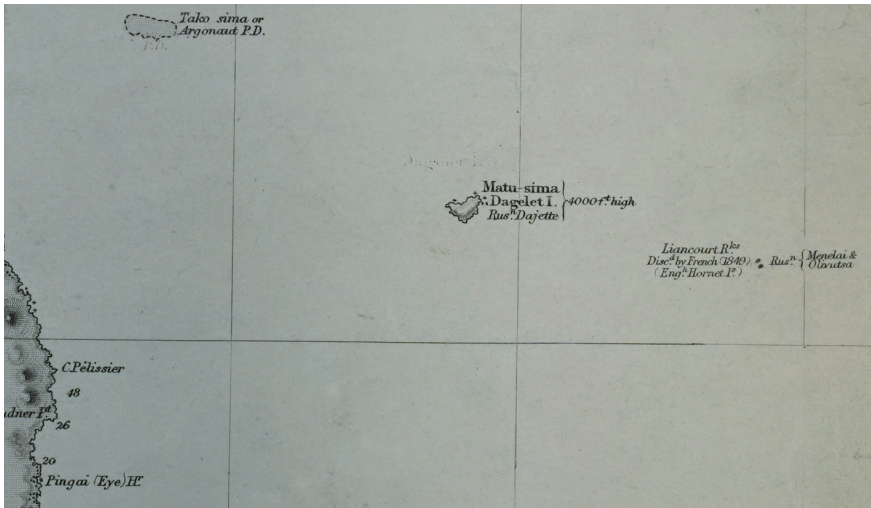
1855년 10월에 작성된 <영국해도> 2347번인 <일본해도(Japan: Nipon, Kiusiu and Sikok, and a part of the coast of Korea)>에는 포사이스 함장의 보고 내용이 반영되어 독도가 호넷섬으로 기재되었다. 그 결과 이 지도에는 두 개의 독도가 기재되었는데, 찬산타오(Tchian-shan-tao)와 호넷섬

포커스 II



<영국해도> 2347번에 기재된 독도들(Tchian-shan-tao, Hornet Ids)

영국 수로국



1861년판 <영국해도> 2347번 내 독도 표기

영국 수로국

(Hornet I^{ds})이다.

1861년이 되면 <영국해도> 2347번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동해안에서 찬찬타오는 사라지고, 호넷섬이라 기재한 독도에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명칭이 함께 기재된다. 찬찬타오가 사라지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러시아 해군 발간 <조선동해안도>(1857)의 내용이 반영되어 한반도 동해안 부분이 혁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도에 프랑스와 러시아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 것은 1849년에 프랑스가 발견한 리앙쿠르암과 1854년에 러시아에서 발견한 메넬라이와 올리부차, 그리고 1855년에 영국이 발견한 호넷섬이 모두 동일한 섬인 독도를 나타내는 것임이 확인된 결과였다. 이렇게 독도에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식 명칭이 함께 <영국해도>에 표기된 것은 1875년까지의 상황이었고, 1876년 이후에 간행된 <영국해도>에는 리앙쿠르암(liancourt R^{ks})만 기재되었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독도가 그려진 서양 고지도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한·중·일에서 그려진 지도를 모사하여 그린 대표적인 서양 고지도들에는 당빌의 <조선왕국도>, 클라프로트의 <삼국충도>, 펠란의 <조선전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지도상에서 독도는 찬찬타오, 우산도 등으로 기재되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 실측 결과가 반영되어 그려진 대표적인 서양 고지도들에는 프랑스 해군 수로국 제작 <태평양해도>(1851), 러시아 해군 수로국 제작 <조선동해안도>(1857), 영국 해군 수로국 제작 <일본해도>(1855)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도에서 독도는 리앙쿠르암, 메넬라이섬, 올리부차섬, 호넷섬 등으로 표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 제3국들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국가가
늘어갈수록 일본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제3의 국가들에게서는 한·일 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3의 명칭인 ‘리앙쿠르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3의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서양 고지도 속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기재된 지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태평양의 섬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는 19세기 초반까지 일본이 영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섬이었다. 특히 1859년에는 미국과 영국이 이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때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클라프포트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삼국통람도설』과 <삼국총도>를 활용하여 오가사와라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1876년에는 영유권을 공인받았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점령했던 이 섬을 다시 반환할 때에도 이 사건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설득함과 동시에 제3국들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포커스 II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국가가 늘어갈수록 일본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종근(金鐘根, Kim, Jong-Geu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 지리학 및 지도학사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동서양 고지도 속의 독도 및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지리학의 주요 연구과제인 지도와 지명에 관심이 많으며 역사지리학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우리 곁에 있는 독도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에 대한 경과

정은정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독도체험관을 들어서면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노랫말처럼 울릉도에서 87km 떨어진 동해에 독도가 있다. 자동차로 1시간 30분 이상을 꼬박 달려야 하는 거리를 배로 간다면 날씨에 따라 2~3시간은 걸린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도로 원표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부산(456km) 간 거리보다 서울-독도(435km) 간 거리가 더 짧지만, 육지와 바다를 달려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가기 힘든 곳, 아주 먼 곳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가기 힘든 곳이지만, 독도는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

각하는 것은 바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이 2005년에 소위 ‘죽도(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하고, 일본 교과서에 버젓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주장하는 상황의 영향이 크다. 우리 국민 스스로 독도를 알아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비해 쉽게 가기 힘든 곳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정부는 독도체험관을 2012년에 서울 서대문구에 개관하였고, 2022년에는 영등포구(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하였다. 이번 지면을 통해 지난 10년간 독도체험관 운영 성과와 확장이전한 독도체험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독도체험관 개관(2012.9.14)

2012년 9월 14일 재단과 교육부는 574m²(약 174평) 공간에 1,500년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독도체험관을 서울 서대문구에 개관하였다. 당시 재단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독도체험관의 개관을 알렸다.

당시 핵심 콘텐츠는 직접 가서 보기 힘든 독도를 120:1로 제작한 모형이었다. 동도와 서도 주변은 바다 영상 연출을 통해 마치 독도 주변 바다에서 독도를 둘러보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512년 『삼국사기』에서 시작된 울릉도, 독도의 1,500년 역사를 담은 연표와 사료, <독도와의 대화> 코너는 커다란 지구본 모양에서 나오는 영상을 손끝의 터치로 독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독도체험관 곳곳에서 보여주는 독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전시패널과 체험활동은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배우고, 독도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체험활동 장소가 되었다. 특히 중학교 수준에 맞추었던 독도체험관의 전시 내용을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초·중·고 학교 전 학년의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학습지와 교구,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완하여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30여만 명이 참여하였다.

2014년부터는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독도 홍보를 확대했고, 이는 지역 교육청 독도전시관 조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후 광화문 <세종이야기> 전시장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상설 전시하게 되었고, 2019년에는 광화문역 ‘광화랑’을 독도전시실로 구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22년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을 계기로 서대문 독도체험관의 전시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추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이전 설치하여 성과를 확산시켜 나갔다.

2022년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을 계기로
서대문 독도체험관의
전시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추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이전
설치하여 성과를
확산시켜 나갔다.

체험! 역사현장



2012년 9월 14일 수도권 최초로 개관한 독도체험관 모습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에
설치된 독도 관련 전시물

2022년 서대문 독도체험관에서
철거한 전시물을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로 이전 설치하였다.

2. 전국에서 만나는 독도, 전국 시도 교육청 독도체험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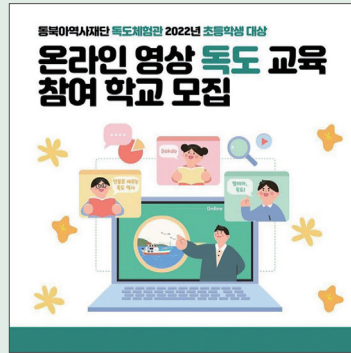
독도체험관을 통한 독도 교육의 성과는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에 독도전시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2014년 경남교육청(과학교육원, 진주), 전북교육청(안전체험관, 고창), 충북교육청(충북교육도서관 진천문학관, 진천), 2015년 전남교육청(여수교육지원청, 여수), 대전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경기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수원), 인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2016년 광주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구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2017년 세종교육청(새롭고), 경북교육청(교육청연구원, 안동), 2018년 충남교육청(충무교육원, 아산), 2019년 울산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2020년 제주교육청(교육박물관), 2021년 강원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원주), 2022년 부산교육청(가칭 역사교육체험관, 2023년 개관)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에 독도전시관 및 독도체험관 개관을 추진하였다.

재단은 2016년부터 독도체험관 구축사업에 참여하였고, 2021년에는 2014~2015년에 구축한 독도전시관 리뉴얼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시패널 위주 콘텐츠에서 체험 중심 콘텐츠로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산하 독도 관련 시설은 독도체험관으로 이름을 통일하였다.

시도 교육청 독도체험관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사업을 맡은 재단은 독도를 주제로 시도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전국 독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갔다.

특히 2019년부터 전국 독도체험관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이론 및 현장, 심화 교육을 통해 독도에 관한 해설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고, 시도 교육청 독도체험관 담당자와 콘텐츠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고 네트워

체험! 역사현장



교육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학습교구 개발과 학교급별 프로그램 운영

크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독도의 역사, 자연과 관련된 주제로 체험 활동 교구를 개발·보급하여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 독도체험관 신규 구축 시에 개발되는 콘텐츠들이 타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를 공유해 갔다.

3. 독도체험관의 확장이전사업 예산 확정 (2020.12.2)

2020년 10월 말, 그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독도 체험관 전시해설사 양성 과정과 독도교원연수를 위해 울릉도·독도를 답사하던 중에 국회로부터 현재 임대공간에서 운영 중인 독도체험관을 영등포구에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이전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왔다.

사실 독도체험관 개관 이후 성과에 비해 예산은 점점 삭감되고, 개관한 지 5년이 넘어가면서 장비는 노후화되고, 이용 관람객의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체험 중심 콘텐츠 보안을 위해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서대문 독도체험관이 재단과 같이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치가 외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

개관한 지 5년이
넘어가면서 장비는
노후화되고,
이용관람객의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체험
중심 콘텐츠 보안을
위해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던 상황이었으니 국회 제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새로운 콘텐츠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있다는 전제는 우리 국민의 관심을 고려한다면 국회를 충분히 설득해 볼 만한 일이었다.

우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나갔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일이라 아무리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하여도 심의 통과를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요청한 80억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다. 교육부와 재단은 한 달을 꼬박 매일 국회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사업 예산 40억 원이 그해 12월에 확정되었다.

4.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대국민 착공보고회(2021.10.25)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사업은 예산 확정 당시 2개년 사업으로 알았다가 단년 사업으로 확인되면서 3개월이 넘도록 세운 계획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였지만, 그렇다고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선 40억 원으로 독도체험관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갔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보니 공간의 층고가 너무 낮아 전시와 체험 위주인 체험관의 공간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기존 575m²(약 174평)에서 990m²(약 300평)로 면적이 대략 두 배 가

카이 늘었다고 하지만, 필수시설을 조성하면 실제 확장된 느낌을 주기는 어려웠다.

결국 국회, 영등포구청과 3~4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독도체험관 조성 위치를 조정하고, 규모도 1,320m²(약 400평)로 330m²를 추가로 더 제공받는 것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공간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2021년 10월 25일 무사히 대국민 착공보고회를 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독도체험관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확장이전하여 재개관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일정 지연, 재료비 상승 등으로 계획했던 콘텐츠 교체와 수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당초보다 추진 일정이 길어졌다.

5. 일상에서 만나는 독도,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재개관(2022.10.25)

국회, 영등포구청과 3~4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독도체험관 조성 위치를 조정하고, 규모도 1,320m²(약 400평)로 330m²를 추가로 더 제공받는 것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하루 유동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한다. 서울 3대 도심 중 하나이기도 하고, 서울 서남권의 핵심이기도 하다.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는 투숙객의 60% 이상이 외국인인 대형 호텔이 있고, 먹거리와 놀거리가 다양해 전 세대가 일상적으로 찾는 곳이기도 하다.

기존 서대문 독도체험관 관람객은 미취학아동

체험! 역사현장

과 초등학생 그리고 학생들의 보호자, 교사였고, 독도체험관을 관람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찾아주셨다.

영등포에 재개관한 독도체험관을 찾는 관람객은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20대 청년층, 50대 이상의 장년층 관람객의 방문이 늘고, 콘텐츠를 보는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다. ‘독도의 현재’, ‘독도의 역사’, ‘독도의 자연’, ‘독도의 미래’ 등 4개 주제전시관을 통해 독도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학교급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등포구로 확장 이전한 독도체험관 전시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개관한 독도체험관의 입구는 울릉도와 독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아트 영상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바로 이어 울릉도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독도를 공동어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울릉도 도동어촌계 주민들의 모습과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소개하고, 독도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실시간 울릉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독도의 현재’ 전시관에서 소개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 전시관에서는 우리 문헌 속에 512년부터 시작된 독도의 1,500년 역사를 연표로 보여주고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사료와 지도,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에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악회가 재단과 MOU를 체결(2021. 11. 29)하고 기탁한 350여 점의 자료 중에 해방 이후 우리 정부가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미공개기록을 전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

‘독도의 역사’ 전시관을 나가면 ‘독도의 자연’ 전시관이 관람객을 맞는다. 먼저 축척 100:1의 국내 실내 최대 크기 독도모형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체험! 역사현장



‘독도 모형’, ‘독도의 자연’, ‘독도의 미래’ 전시관 모습

체험! 역사현장



미취학(유치원) 관람객 대상 교육 모습



교육전시실에서 교구를 활용한 체험교육활동 모습

체험! 역사현장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개관식(2022. 10. 25)



영등포역 내 지하철 광고

체험! 역사현장

이번 확장이전한 독도체험관에서도 독도모형은 가장 중요한 콘텐츠이다. 독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방문객이 독도에 내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이다. 전체 섬을 다 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기에 독도를 실제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관람객이나 짧게 다녀온 관람객에게 제대로 된 독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현재 독도모형 조성을 위해 활용하는 정부 제공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독도의 모습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사진자료는 촬영 지점이나 각도, 날씨에 따라 달라 그 또한 100% 의지해서 모형을 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영등포구에 구현된 독도모형은 이러한 자료와 함께 독도를 내 집처럼 자주 다니면서 독도의 동·서도와 주변 바위 상태를 정확하게 자문해줄 전문가들이 수시로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여 현재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재현했고, 이러한 결과는 관람객들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도모형을 한 바퀴 돌면 독도의 사계절을 만날 수 있는데, 계절별로 독도 주변의 하늘, 땅,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들이 소개되어 있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마지막은 독도의 미래에 관한 전시다. 이곳에서는 독도체험관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와 그동안 재단이 만들어낸 다양한 연구성과와 홍보자료, 그 외 독도 관련 기관에서 만든 자료들을 대형 터치모니터에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

2023년 1월, 메타버스게임과 AR콘텐츠가 신규 구축되었고, 기획전시실은 독도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로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갈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영토주권에 관한 의식, 독도의 소중함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영등포 독도체험관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독도 관련 교육과 홍보의 거점이 될 것이다.

6. 숫자로 본 독도체험관의 성과, 그리고 2023년

2012년 9월 14일 개관한 서대문 독도체험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모두 28만 3,057명이다.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예산이 확정된 후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223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을 추진한 지 1년이 경과되었을 즈음, 2021년 10월 25일에 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과 함께 비대면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착공기념 대국민보고회는 8,189명이 동시 시청했고 26만 3,219건의 ‘좋아요’ 호응이 있었다.

그로부터 딱 1년 뒤인 2022년 10월 25일에 영등포로 확장이전하여 재개관한 독도체험관은 1,320m²(약 400평) 면적에 32개의 다양한 주제영상이 있고, 지난 1,500년의 역사를 25개의 주요 사건과 49개의 사료로 소개하고 있다.

독도체험관 재개관 이후 휴일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68일을 운영하여 4만 7,406명이 다녀갔다. 2023년에는 365일 중 명절 연휴 11일

2023년 1월,
메타버스게임과
AR콘텐츠가
신규 구축되고,
기획전시실은 독도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로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갈 것이다.

체험! 역사현장

을 제외한 354일을 개관할 예정이고, 방문관람객 최소 15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박물관, 전시관과 견줄 수 있는 관람 실적이 될 것이다.

운영의 안전화와 내실화, 콘텐츠 보완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독도체험관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더 나은 관람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보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은정(鄭銀定, JEONG, EUNJUNG)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NGO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경희대NGO대학원을 거쳐, 성공회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6년 재단에 입사하여 국내외 시민단체 교류, 교사, 학생, 시민 대상 교육사업을 주로 하였고, 2015년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바로알기』 초·중등 부교재 개발 집필진으로도 참여하였다.

Message from the Editor-in-Chief Kim, Hyun-chul

Guest Essays

Dokdo from the Perspective of a Korean Researcher in Japan

Park, Byoung-sup

Focus I

In Defense of Dokdo: Koreans and the Island

An Yong-bok and His Testimony in the Border Defense Council(Bibyeonsa)

Chung, Young-mi

Jang Han-sang, a Military Officer dispatched to Ulleungdo: His Activities and the Policy of Regular Inspection

Jang, Jungsoo

Shim Heung-taek, a County Magistrate of Uldo: His Administrative Accomplishments in Ulleungdo and Dokdo

Park, Han-min

A Brief Biography of Lee Jong-hak, the First Director of the Dokdo Museum

Yu, Ha-Young

Yoon Young-ha, an Untiring Advocate of Dokdo in Osaka

Hong, Seong Keun

The Life of Choi Jong-deok, the First Resident of Dokdo

Doh, See-hwan

Focus II

Dokdo in Old Maps

Dokdo on the Old Maps of Korea

Oh, Sanghak

Dokdo on the Old Maps of Japan

Shim, Jeongbo

Dokdo on Western Old Maps

Kim, Jong-Geun

Experience Historical Sites

The Expansion and Reopening of the Dokdo Museum Seoul

JEONG, EUNJUNG